

#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박 중 규

---

2009. 3



## 머 리 말

작년 여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100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금융 쓰나미'로 돌변하더니 순식간에 전세계 금융시장을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위기상황에 빠진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중개기능이 거의 마비되어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실물경제도 심각한 침체국면에 돌입하였다. 금년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1998년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해가 되면서 우리경제의 위축속도는 예상보다 매우 빨라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점점 실체를 드러내며 다가오고 있는 경제위기와 맞설 각오를 다져야 할 때이다.

우리는 11년 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견디어 낸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경험이 그 이후의 우리경제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연쇄부도와 대량 실업이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미루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생존전략을 막연하나마 각자의 마음 속에 느끼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상황은 유사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많다. 따라서 위기대응을 위한 전략이 성공적이려면 현재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위기극복을 위해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도 그러한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경제주체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대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일

지 등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인 박종규 박사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지난 30년 동안의 분기별 소비지출 내역통계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찾아낸 시사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1979년 10월에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 1997년 말의 외환위기, 그리고 2002년 말의 카드사태 등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특히 자신의 소비내역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했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고, 그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나타난 소비자들의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미 집 밖에서 쓰는 외출형 소비를 줄이고 집 안에서 쓰는 재택형 소비를 늘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소비지출 내역을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지출내역 조정은 과거 30년 동안의 우리 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로서 30년간 딱 두 차례, 즉 외환위기로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던 1997년 4/4분기와 2008년 2/4분기 중에만 관찰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 두 분기 중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소비내역 조정방식은 놀랄 만큼 서로 흡사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도 전이었던 2008년 봄에 이미 경제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작년 봄부터 이미 예비적 동기에 의한 강한 저축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면서, 소비자들이 그와 같이 강한 저축동기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 여건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갈수록 더 많은 부양대책, 더 강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 이것저것을 따질 여유가 없이, 성장률의 급락을 막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시도해 보아야 할 만큼 사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원칙마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선택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어 보인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가 우리경제의 앞날을 헤쳐 나가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비지출의 거시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의 구성을 분석한 것으로서 이러한 측면의 분석은 필요성이 절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가 이 보고서의 핵심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는 '재택형 소비' 및 '외출형 소비'라는 개념 역시 내가 아는 한 이 보고서가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가계 소비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에서도 많은 논의와 추가 연구가 뒤따르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데이터 수집과 자료검색에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최정아 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서은해 연구비서에게 저자의 감사의 말을 대신 전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정책제언들은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김 태 준



# 목 차

## 요 약

I. 서 론 .....	1
II. 지난 30년간 가계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내역의 추이 .....	5
1. 가계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	9
2. 항목별 가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	26
III. 지난 30년 동안의 가계소비 감소 사례분석 .....	30
1. 연속적 소비감소의 기간별 특징 .....	31
2. 일시적 소비감소 분기 중 경제여건의 특징 .....	38
IV. 2008년 2/4분기 가계소비 내역변화와 시사점 .....	44
1. 과거 소비감소 기간과의 비교 결과 .....	46
2. 2008년 2/4분기와 '97년 4/4분기 및 '02년 4/4분기의 비교 .....	53
3. 外出型 소비지출의 총가계소비 및 다른 형태의 지출에 대한 Dynamics .....	56
4. 분석결과의 해석과 시사점 .....	62
V.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66
참고문헌 .....	72
Abstract .....	73

## 표 목 차

〈표 1〉 소비지출 항목별 전분기대비 평균 증가율(1978Q3~2008Q2) .....	10
〈표 2〉 소비지출 항목별 전분기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1978Q3~2008Q2) ...	12
〈표 3〉 목적별 소비지출의 지출비중 변화 추이 .....	13
〈표 4〉 목적별 소비지출의 소비비중 비교 .....	24
〈표 5〉 기간별 가계최종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	27
〈표 6〉 소비감소 분기(최초 감소 분기) 중 항목별 소비증감 기여도 추이 ..	48
〈표 7〉 소비감소 분기(최초 감소 분기) 중 항목별 소비증가 기여도 추이 (2008:Q2 기준 재정리) .....	49
〈표 8〉 소비감소 분기(최초 감소 분기) 중 항목별 소비증감 추이 .....	50

## 그림 목 차

〈그림 1〉 가계최종소비 전분기대비 증가율 히스토그램 .....	7
〈그림 2-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	14
〈그림 2-2〉 주류 및 담배 .....	14
〈그림 2-3〉 음식·숙박 .....	16
〈그림 2-4〉 임료 및 수도광열 .....	16
〈그림 2-5〉 교 육 .....	18
〈그림 2-6〉 의류·신발 .....	18
〈그림 2-7〉 가계시설 및 운영 .....	20
〈그림 2-8〉 교 통 .....	20
〈그림 2-9〉 의료·보건 .....	21

〈그림 2-10〉 오락·문화 .....	21
〈그림 2-11〉 기타소비 .....	22
〈그림 2-12〉 통 신 .....	22
〈그림 2-13〉 거주자 국외소비 .....	23
〈그림 3〉 가계 최종 소비지출의 전분기대비 증가율 추이 .....	31
〈그림 4〉 우리나라 연도별 자살률 추이 .....	36
〈그림 5〉 우리나라 연도별 이혼율 추이 .....	37
〈그림 6〉 그룹별 소비지출의 가계소비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	58
〈그림 6-1〉 외출형 소비 ⇒ 가계소비 .....	58
〈그림 6-2〉 재택형 소비 ⇒ 가계소비 .....	58
〈그림 6-3〉 기타형 소비 ⇒ 가계소비 .....	59
〈그림 7〉 그룹별 소비지출의 상호 충격반응함수 .....	60
〈그림 7-1〉 외출형소비 ⇒ 기타형소비 .....	60
〈그림 7-2〉 외출형소비 ⇒ 재택형소비 .....	60
〈그림 7-3〉 재택형소비 ⇒ 외출형소비 .....	60
〈그림 7-4〉 재택형소비 ⇒ 기타형소비 .....	60
〈그림 7-5〉 기타형소비 ⇒ 외출형소비 .....	61
〈그림 7-6〉 기타형소비 ⇒ 재택형소비 .....	61
〈그림 8〉 분기별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	63
〈그림 9〉 개인 순저축률 추이 .....	65



## 요 약

### I. 서 론

- 2008년 2/4분기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전기대비 0.16% 감소
  - 2002년 가을의 카드사태로 소비가 최장기간의 감소를 겪었던 이래 처음 나타난 소비 감소로서 향후 가계소비가 상당기간 동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가능성을 예고
  - 3/4분기 들어 가계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전기대비 0.07%의 플러스로 돌아섬으로써 소비감소는 한 분기에 그쳤지만, 그 증가세가 극히 미미하여 소비가 안정적인 증가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실물경제도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중임.
  - 12월 현재 우리경제는 아직 심각한 경기위축이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으나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이 10월의 8.5%에서 11월에는  $\Delta$ 18.3%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 경기전망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
  
- 소비가 감소하던 금년 2/4분기는 아직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미 소비의 절대액을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구성내역의 조정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II. 지난 30년간 가계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내역의 추이

■ 국민계정에서는 가계소비지출을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의 구성비의 변화는 가처분소득,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성, 고용사정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여건 외에도 소비자 선호의 변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같은 미시적인 여건 변화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아왔을 것임.

- 소비자들이 전체 소비지출을 구성항목 각각에 배분할 때 그러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다면, 소비구성의 변화로부터 그러한 거시적 또는 미시적 여건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이런 전제하에, 최근의 소비구성의 변화, 특히 소비가 감소하였던 금년 2/4분기의 가계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는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함.

■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총액을 늘이거나 줄일 때 각 지출항목들을 一樣的으로(uniformly)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역의 구성 또한 매우 활발하게 변화시킴.

- 이러한 소비내역의 변화는 경제성장, 금리, 소득, 고용여건, 가계부채 총액 등 거시경제적 여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미시적 정보를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 가계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 지난 30년간 항목별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천을 5년 단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 통신의 소비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산업의 등장 및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대부터 가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급증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음.
  - 교육비는 1980년대에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7.3%에 달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평균 5.2%로서, 소비자들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점증하고 있다는, 최근의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식음료 및 비주류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의류·신발, 임료 및 수도광열, 교육, 음식·숙박 등은 모두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비해 소비비중이 줄어왔음.
  -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보건, 교통 등은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지출비중이 크게 높아진 뒤 2000년대 들어서는 비중이 다시 낮아지고 있음.
  - 통신, 오락·문화, 기타소비 등은 소비비중이 추세적으로 매우 빨리 높아지고 있으며 거주자 국외소비 역시 1990년대 이후 비중이 크게 높아진 뒤 외환위기 이후 급락하였다가 그 뒤로 다시 높아지고 있음.

## 2. 항목별 가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소득탄력성을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면 그동안 가장 높은 소득탄력성을 보였던 품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통신, 의료보건, 오락 문화의 순서로 소득탄력성이 높았음.
  - 소득탄력성이 가장 낮았던 품목은 주류 및 담배였고 다음으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교통비의 순서였음.
-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품목의 소득탄력성이 일제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가계대출의 급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소득증가에 비해 훨씬 많은 소비지출을 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됨.

## Ⅲ. 지난 30년 동안의 가계소비 감소사례 분석

- 지난 30년 동안 가계최종소비지출(계절조정)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 대비 감소를 나타냈었음.
  - 구체적으로 ①1980년 1/4분기 및 4/4분기, ②1996년 3/4분기 ③1997년 1/4분기, ④1997년 4/4분기 및 1998년 1/4분기 ⑤2000년 4/4분기, ⑥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까지, 그리고 ⑦2008년 2/4분기였음.

## 1. 연속적 소비감소의 기간별 특징

- 1980년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는 제2차 오일쇼크와 냉해의 여파로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실질 성장률이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감소세를 나타냈던 기간이었음.
- 다음으로, 1997년 4/4분기( $\Delta 1.86\%$ )와 1998년 1/4분기( $\Delta 14.72\%$ )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에 따라 실물경제가 6·25 사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던 기간이었음.
-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까지는 카드버블의 붕괴를 겪으면서, 수출호조로 성장률은 플러스였으나 소비감소가 최장 기간 동안 이어지고 이에 따라 내수가 극도로 침체되던 기간이었음.

## 2. 일시적 소비감소 분기 중 경제여건의 특징

- 1996년 3/4분기의 소비감소( $\Delta 0.09\%$ )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하나의 誤報(false alarm), 즉 뒤따르는 지속적인 소비감소 기간을 예고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 가계최종 소비지출은 1996년 3/4분기 중 전기대비  $\Delta 0.09\%$ 를 기록한 뒤 1996년 4/4분기에는  $3.17\%$ 로 크게 반등하였을 뿐 아니라 이것을 외환위기에 따른 소비감소의 前兆로 보기에 는 시간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됨.

- 1997년 1/4분기의 소비감소( $\Delta 0.72\%$ )는 일시적인 감소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1997년 4/4분기부터 시작되는 경제위기에 대한 사전경고로 보아야 할지,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음.
  - 1997년 1/4분기는 경제성장률이 아직 플러스였으나 경상수지가 전년  
에 이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점차  
커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경제 분위기가 전반  
적으로 불안하였던 시기였음.
  
- 2000년 4/4분기 중 가계소비는 전기대비 0.03% 증가에 그쳐 비록 숫자  
상 감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증가도 아니었으므로 대표적인  
誤報 事例로 분석에 포함시켜 보았음.
  - 당시의 소비정체가 지속적인 소비감소를 수반하지 않았던 것은 2001  
년 중 급격한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가계대출 확대로 민간소비가  
크게 부양되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08년 2/4분기( $\Delta 0.16\%$ )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파산하고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었  
으나 아직 국내에는 본격적으로 전염되지는 않았으며, 다만 환율이 조금  
씩 오르는 가운데 국내 주가가 크게 하락하던 상황이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30년 동안 최종소비지출이 감소하는  
일은 상당히 드물었으며, 대부분 극심한 경기 또는 내수경기 침체를  
동반하거나 예고하였고, 한 분기에 그치기보다는 두 분기 이상 지속되  
었었음.

## IV. 2008년 2/4분기 가계소비 내역변화와 시사점

■ 2008년 2/4분기 현재, 소비자들이 전기대비로 가장 많이 줄인 지출항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로서 이 항목의 전체소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Delta 0.27\%p$ 이었음.

- 다음으로는 가계시설 및 운용( $\Delta 0.26\%p$ ), 교통( $\Delta 0.2\%p$ ), 오락·문화( $0.12\%p$ ), 의류 및 신발( $\Delta 0.10\%p$ ) 등이었음.
-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기타소비지출( $0.56\%p$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0.14\%p$ ), 통신( $0.11\%p$ ), 의료보건( $0.10\%p$ )의 순서로 소비지출을 늘이기도 했음.

■ 이러한 구성비 변화의 특징은 소비자들이 주로 가정 밖에서 지출하는 외출형(外出型) 소비지출을 줄인 반면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재택형(在宅型) 소비지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임.

- 해외소비로 일컬어지는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을 비롯하여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은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 머물러 있다면 지출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항목들이라 할 수 있음.
- 가계시설 및 운용은 소비자들이 가정생활의 편의를 위해 구입하는 항목으로서 이를 외출형 소비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결혼, 이사 등을 계기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이므로 이것을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지출, 즉 재택형 소비로 보기도 어려움.

■ 소비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2008년 2/4분기 중 기타소비지출(0.56%p),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0.14%p), 통신(0.11%p), 의료보건(0.10%p)의 순서로 소비지출을 늘였음.

- 이들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통신 등은 주로 在宅型 소비 지출로 볼 수 있음.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대표적인 외출형 소비인 外食費의 대체재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금년 2/4분기 중 음식·숙박을 줄이는 대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구입을 늘였다는 사실은 식사를 위한 외출을 줄이는 대신 가정 내에서의 식사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통신에는 오락·문화 관련 욕구를 가정 내에 머물면서 충족시키는 수단이 포함되었다고 해석한다면, 통신지출은 하나의 재택형 소비로서, 외출형 소비인 오락·문화 지출의 대체재로 볼 수 있음.

■ 2008년 2/4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거시경제 여건이 아직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외출을 줄이고 재택형 소비를 늘리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음.

## 1. 과거 소비감소 기간과의 비교 결과

■ 2008년 2/4분기 중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을 줄인 소비항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가계시설 및 운용,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으로서 이들 5가지 항목이 전체 소비의 30.3%를 차지

-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을 늘린 소비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통신, 의료·보건으로서 이들 3가지 항목이 전체 소비의 35.9%를 차지
- 지난 30년 동안 소비가 감소하였거나 감소하기 시작했던 7차례의 분기 중 예외 없이 나타났던 현상은 임료·수도·광열지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임.
- 거주자 국외소비(02Q4), 가계시설(97Q1), 교통(80Q1), 의류·신발(96Q3)의 경우는 한 차례의 예외가 있었을 뿐 소비가 감소할 때마다 어김없이 감소함.
- 전체 소비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지출이 감소하던 1980년 1/4분기의 상황은 국민 소득수준 또는 생활수준, 선호, 그리고 산업발달 단계 등 여러 면에서 지금과는 매우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됨.
- 가계시설 및 운영 지출이 감소하였던 1997년 1/4분기와 의류·신발의 소비가 감소하던 1996년 3/4분기는 곧 이어 소비가 다시 증가했던 일시적 감소였으므로 해당 지출을 줄였던 소비자의 선택 또한 일시적인 판단오류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 2008년 2/4분기에 지출규모가 줄어들었던 항목들 가운데 거주자 해외 소비지출, 교통, 가계시설 및 운영, 의류·신발 등은 소비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여온 항목으로 간주하여도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임.

- 지금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1980년 1/4분기와 일시적 소비감소 분기였던 1996년 3/4분기 및 2000년 4/4분기에 오락·문화의 지출이 증가하긴 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및 카드버블 붕괴에 따른 소비 감소 기간의 초입에는 오락·문화지출도 어김없이 감소하였었음.

■ 2002년 4/4분기의 소비감소 시작분기와 금년 2/4분기를 제외하면 최종 소비지출이 감소하더라도 음식·숙박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흥미로운 모습이 관찰되고 있음.

- 한편, 2008년 2/4분기와 1980년 1/4분기를 제외하면 전체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교육지출은 늘어났었음.
- 1980년 1/4분기와 2002년 4/4분기를 제외하면 소비지출이 감소하더라도 통신지출은 늘어났었음.

## 2. 2008년 2/4분기와 '97년 4/4분기 및 '02년 4/4분기의 비교

■ 개별 소비항목의 증감의 부호만을 보았을 경우 지출구성 변화패턴이 2008년 2/4분기와 가장 유사했던 경우는 1997년 4/4분기였음.

- 13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음식·숙박, 교육, 의료·보건을 제외한 10개 항목이 외환위기로 소비가 전기대비 감소를 나타내기 시작하던 1997년 4/4분기와 증감의 방향이 일치
- 이들 10가지 항목들은 1997년 4/4분기와 2008년 2/4분기에 각각 전체 소비지출의 84.7%와 84.3%를 차지함으로써 양 기간의 민간소비는 전체 감소폭이 달랐을 뿐 성격은 매우 유사

- 2002년 4/4분기와 비교했을 때 국외소비, 교육, 통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등을 제외한 9개 항목의 증감의 방향이 일치

  - 이들 9개 항목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4분기의 경우 72.2%, 2008년 2/4분기의 경우 71.5%였음.
  
- 한편, 소비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순서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보면 2008년 2/4분기의 경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Delta 0.27\%p$ ), 가계시설 및 운영( $\Delta 0.26\%p$ ), 교통( $\Delta 0.2\%p$ ), 오락문화( $\Delta 0.12\%p$ ), 의류 및 신발( $\Delta 0.1\%p$ ) 등 5가지였음.

  - 1997년 4/4분기의 경우도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Delta 0.93\%p$ ), 교통( $\Delta 0.7\%p$ ), 의류 및 신발( $\Delta 0.32\%p$ ), 가계시설 및 운영( $\Delta 0.22\%p$ ), 주류 및 담배( $\Delta 0.09\%p$ ), 오락문화( $\Delta 0.07\%p$ ) 등으로서 이들은 소비감소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교통, 가계시설 및 운영, 의류 및 신발, 오락 문화지출이 두 기간 공히 소비감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
  
- 한편, 소비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순서대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2008년 2/4분기에는 통신(0.11%p),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0.14%p), 기타소비(0.56%p) 등 3가지였음.

  - 1997년 4/4분기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0.06%p), 통신(0.38%p), 임료 및 수도광열(0.39%p) 등 세 가지로서 이들 각각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과 통신의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포함
  
- 한편, 2008년 2/4분기와 2002년 4/4분기에 있어서 소비의 감소 및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1/3의 부분의 구성을 보면 양자의 유사점이 2008년 2/4분기 및 1997년 4/4분기 사이의 유사점보다 뚜렷하지 않음.

■ 우선, 소비감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전체의 1/3의 경우 2002년 4/4 분기에는 의류 및 신발( $\Delta 0.49\%p$ ), 오락문화( $\Delta 0.25\%p$ ), 교통( $\Delta 0.18\%p$ ), 음식숙박( $\Delta 0.13\%p$ )으로서 2008년 2/4분기와 비교했을 때 교통, 오락 문화, 의류 및 신발 등 3가지 항목만이 일치

- 소비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순서대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품목 들을 보면 2002년 4/4분기의 경우 의료보건( $0.11\%p$ ), 기타( $0.26\%p$ ), 임료 및 수도광열( $0.6\%p$ )로서 기타소비지출만이 2008년 2/4분기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처럼 소비증감에 기여한 부호만으로 놓고 볼 때 1997년 4/4분기와 2002년 4/4분기의 항목별 구성의 변화는 그다지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그러나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출을 줄이거나 늘렸느냐를 비교했을 때 2008년 2/4분기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선택결과는 카드 사태로 인해 장기소비감소가 뒤따랐던 2002년 4/4분기보다는 외환위기로 인해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되던 1997년 4/4분기와 매우 흡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3. 외출형 소비지출의 총가계소비 및 다른 형태의 지출에 대한 Dynamics

■ 외출형 소비의 감소 및 재택형 소비의 증가로 표현되는 소비심리의 위축이 실제로 연속적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인지를 VAR 검정을 통해서 분석해 봄.

- 외출형 소비의 1% 증가로 전체 가계소비는 2.2%p 늘어나며 충격의 영향도 2분기 동안 지속되는 데 반해, 재택형 소비와 기타형 소비의 전체소비에 대한 영향력은 그것의 절반 정도이며 지속기간도 1분기에 그칩.
- 또한, 각각의 소비지출은 서로 대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특히 외출형 소비는 다른 품목과의 대체관계가 크고 다른 소비에 대한 충격의 지속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남.

#### 4. 분석결과와 해석과 시사점

- 우리나라 개인 순저축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의 순저축률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하락추세에서부터 급격하게 반전하여 전년의 15%에서 23.2%로 급등
  - 1998년의 저축률 급등은 케인즈가 열거한 아홉 가지의 저축동기 중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저축동기는 예비적 동기라고 판단
  - 저축결정의 그림자는 곧 소비결정이라고 할 때 2008년 2/4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내역의 변화로 은연 중 드러낸 소비심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곧 예비적 저축동기가 고조되었다는 점이라고 판단

#### V. 요약 및 정책 시사점

- 2008년 2/4분기 현재, 소비자들은 카드 버블의 붕괴 및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소비가 최장 기간 동안 감소를 지속하기 시작하던 2002년 4/4분기보다는 외환위기로 경제여건이 급속하게 악화되기 시작하던 1997년 4/4분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비구성을 변화시켰음.

-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소비여건이 '완만하게 악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이러한 결과가 2008년 2/4분기, 즉 美國發 금융위기의 파장이 아직 국내로 본격 파급되기 이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여건의 악화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2008년 3/4분기 들어 가계소비 전기대비 증가율은 플러스로 전환되어 감소세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증가율이 0.07%에 불과하여 의미 있는 플러스 증가는 아니었다고 판단됨.

- 아울러, 우리경제는 수출과 성장률이 모두 악화일로에 있으며, 특히 2009년 상반기 중에는 거시경제가 중대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금년 2/4분기 중의 소비 감소 및 구성내역의 변화양상은 향후의 가계소비 증가율이 조만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적어도 당분간은 소비가 원활하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미 금년 봄 현재, 자신들이 체감하는 소비여건이 거의 외환위기 시작단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됨.

- 소비자들의 이와 같은 상황인식은 앞으로 국내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될 때 정부가 마련한 내수부양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임.

- 특히 소비심리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감세 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음.
- 감세가 이루어지더라도 소비자들은 감세액만큼 자신의 가처분소득이 실제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감세정책이 경기 부양효과를 발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 특히 종합소득신고자들의 경우는 매년 종합소득신고서류를 작성할 때야 비로소 감세로 인한 세부담 경감액 내지 가처분소득 증가액이 정확히 얼마였는지를 알게 됨.
- 감세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액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이를 소비증가에 쓸지 아니면 저축증가 내지 채무감소에 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지금 처럼 소비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감세액을 소비증가 대신 저축증가 또는 채무감소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임.
  -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소비자들이 예비적 동기(precautionary motive)에 따른 저축심리가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부양을 위해 더 효과적임.
- 더구나 현행의 감세방안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게 세부담 경감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감세정책의 경기부양효과는 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됨.

■ 소비심리의 회복은 심리요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결국 소비자들이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요인들이 호전되어야 가능해짐.

- 정책의 시의성, 적절성, 일관성을 확보하여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고 대응전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안심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
- 적절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글로벌 금융불안으로부터 우리 경제가 입게 되는 타격을 최소화해 나가야 소비심리도 서서히 호전되어갈 것임.

## I. 서론

2008년 2/4분기 우리나라 실질 가계 최종 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0.16% 감소하였다. 가계소비<sup>1)</sup>가 감소하는 일은 우리 경제에서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30년,<sup>2)</sup> 즉 1978년 4/4분기에서 2008년 3/4분기까지 총 120개 분기 가운데 가계소비가 전분기에 비해 감소했던 경우는 13회에 불과하였다. 이들 13 차례의 가계소비 감소 가운데는 두 차례의 일시적인 감소, 즉 한 분기 동안만 소비가 감소하였던 경우도 있었지만, 제2차 오일쇼크, 외환위기, 카드대란에 따른 소비감소 사례들처럼 소비가 연이어 감소했던 경우<sup>3)</sup>가 대부분이었다.

과거 30년 동안 일시적인 소비감소가 단 두 차례<sup>4)</sup>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2008년 2/4분기의 소비감소가 연속적 소비감소의 시작일 확률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경제는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본격적인 경기침체를 앞두고 있으므로 2008년 4/4분기 이후 가계소비도 또다시 감소할 가능성도 사실상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의 내역은 어떻게 변했는

- 
- 1) 이후부터는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을 간단히 줄여 “가계소비”로 지칭하기로 한다.
  - 2) 우리나라 가계소비 데이터는 1971년부터 시작하고 있어 그에 대한 분석 또한 1971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까지의 가계소비 전분기 대비 증가율 시계열은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기간의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의 가계소비 증가율 시계열이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불안정해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도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지난 30년간, 즉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 3) 본 연구에서는 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던 기간에 포함되는 소비감소 분기들을 하나로 묶어, 각각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 4) 마지막 소비감소는 2008년 2/4분기로서 이것이 일시적인 소비감소로 끝날 경우 지난 30년간 일시적인 감소는 세 차례가 된다. 그러나 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2009년 1월 현재, 2008년 2/4분기의 소비감소가 일시적인 감소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므로 일단은 두 차례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로 한다.

## 2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지를 살펴봄으로써 2008년 2/4분기에 나타난 소비감소의 성격을 과거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가계소비의 전체규모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달라졌는가 하는 총량적(aggregate) 측면의 질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소비내역의 구성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내역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장률, 실업률, 임금, 금리, 대출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미시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요인들이 소비결정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면, 소비내역 구성의 변화로부터 소비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모종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물론, 소비내역의 구성변화를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거시적, 미시적, 심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따로따로 구분하여 측정해 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결정에 영향을 주되 거시경제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을 소비내역의 구성변화로부터 파악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된 관심 대상은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소비가 감소를 기록한 2008년 2/4분기이다. 이 시기의 가계소비 감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당시 소비자들의 소비내역의 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시사점을 추출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의 가계소비 내역변화의 특징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출형 소비”를 줄이고 “재택형 소비”를 늘렸다는 점이었다. 즉 집밖에 나가 지출하는 비용을 줄이는 한편, 그 대신 집안에 머물면서 쓰게되는 지출은 늘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비내역의 조정은 지출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임은 물론이겠지만,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패턴은 과거 30년 간 쉽게 관찰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외환위기에 따라 극심한 경기 침체를 눈앞에 두고 있던 1997년 4/4분기에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던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2008년 2/4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11년 전 “외환위기”의 초입단계에서 관찰되던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으로서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경제의 앞날이 불확실해지는 시기에 당면하여 예비적 동기에 따른 상당히 강력한 저축심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본 보고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중심적 내용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후반부인 제Ⅳ장에 논의되어 있다. 본 연구의 본론인 제Ⅳ장에 앞서 그 배경으로서 제Ⅱ장과 제Ⅲ장이 할애되어 있다. 제Ⅱ장에서는 과거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우리나라 가계소비 구성내역 변화의 특징적인 사실들을 시대별로 정리해 보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가계소비 구성내역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별로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계열 통계에서 간추릴 수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서술해 둔 것이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지난 30년 동안을 놓고 볼 때 가계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 소비가 감소하던 사례들 가운데 일시적인 감소는 언제였고 연속적인 감소의 경우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기간에 우리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제Ⅳ장에서는 2008년 2/4분기의 소비내역 구성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는 한편,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제Ⅳ장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앞서 소개한 “외출형 소비” 및 “재택형 소비”를 기준으로 한 가계소비 지출항목의 분류와 함께 그에 기초한 비교분석 및 계량적 분석 결과를 제시

#### 4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하고 있다.

끝으로 제 V장에는 정책 시사점과 함께 맺음말을 적어 놓았다. 특히 소비자들이 강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심리를 가지고 있을 때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II. 지난 30년간 가계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내역의 추이

가계소비가 감소하였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카드사태와 신용불량자 급증, 가계부채의 확대 등으로 경제개발 이후 우리경제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던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까지의 기간이었다. 그 이후 4년만인 2008년 2/4분기에 가계소비는 또 다시 감소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착수동기도 2004년 3/4분기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를 지속하여 온 가계소비가 2008년 2/4분기 중 왜 갑자기 감소하였는지, 그 원인은 무엇이고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소비 감소사례의 특징이나 경제적 배경, 그리고 2008년 2/4분기 중 나타난 소비구성의 내역변화를 과거의 사례와 비교함으로써 언어낼 수 있는 시사점 등은 제Ⅲ장과 제Ⅳ장으로 일단 미루고, 여기서는 지난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가계소비 구성내역 변화의 특징적인 사실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 가계소비지출은 국민계정에서 집계되는 데이터인데 다음과 같은 13개 항목<sup>5)</sup>으로 나누어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sup>6)</sup> 주류 및 담배,<sup>7)</sup> 의류 및 신발,<sup>8)</sup> 임료 및 수도 광열,<sup>9)</sup> 가계시설 및 운영,<sup>10)</sup> 의료 및 보건,<sup>11)</sup> 교통,<sup>12)</sup> 통신,<sup>13)</sup> 오락문화,<sup>14)</sup> 교육,<sup>15)</sup> 음식숙

5) 가계소비에는 이들 13개 항목 말고도 공제항목으로서 비거주자 국내소비가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외국인들의 소비지출이다. 가계소비는 이들 13개 항목들을 합산한 뒤 비거주자 국내소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비거주자 국내소비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소비결정과정에서므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선택 행위에 대해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6) 식음료 및 비주류 음료품은 식품 및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 일체임.

7)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와 담배류, 최면성 제품으로 구성됨.

8) 의류 및 신발류

9) 실제 임대료와 귀속 임대료, 주거용 건물의 유지 및 보수 관리, 수도공급 및 주거용 건물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전기·가스·기타 연료가 포함됨.

## 6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박,<sup>16)</sup> 기타소비,<sup>17)</sup> 거주자국의소비 등이다. 이들 13개 구성항목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一樣的(uniform)이지 않고,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움직임에 못지않게, 많은 경우, 그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可變的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림 1〉은 지난 120개 분기 동안에 관찰된 가계소비지출 전분기대비 증가율을 사용하여 두 가지의 확률분포를 그려 본 것이다. 막대 모양의 히스토그램은 가계최종소비지출, 즉 전체 가계소비의 증가율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며, 회색의 영역은 가계최종소비지출의 13개 항목들의 증가율 데이터를 하나의 확률분포<sup>18)</sup>로 그린 것이다. 이 그림에서 회색의 영역은 막대 모양의 히스토그램보다 분포의 꼬리(tail)가 훨씬 두꺼운 모습을 하고 있다. 이는 13개 항목별 소비지출 증가율들의 변화 폭이 전체 가계소비 증가율의 변화 폭보다 훨씬 컸다는 의미, 다시 말하여 개별 소비품목의 증가율들이 전체 가계소비 증가율에 비해 훨씬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았음을 의미한다.<sup>19)</sup>

10) 가구·비품이나 실내 장신구, 카펫 및 바닥 덮개, 가정용 식물, 가전제품, 유리그릇, 식기, 기타 가정용품, 가옥 또는 정원용 도구와 장비, 가계의 일상적 정비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로 구성됨.

11) 의료 및 의약품, 치료기구 및 장비, 병원 외 의료 서비스 및 병원 서비스임.

12) 차량구입, 개인 수송 장비의 운영, 연료, 수송서비스로 구성됨.

13) 우편 등의 우송 서비스, 인터넷, 전화나 팩스 기구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임.

14) 시청각, 사진, 정보 등과 관련된 장비 및 부속품, 오락문화를 위한 기타 내구재, 기타 오락아이템과 장비, 유원지나 공원, 애완동물, 오락 및 문화 서비스, 신문, 서적, 문구류와 패키지 휴가 등이 포함됨.

15) 유아 및 초등·중등·고등 및 부가적인 기타 교육(학원,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 일체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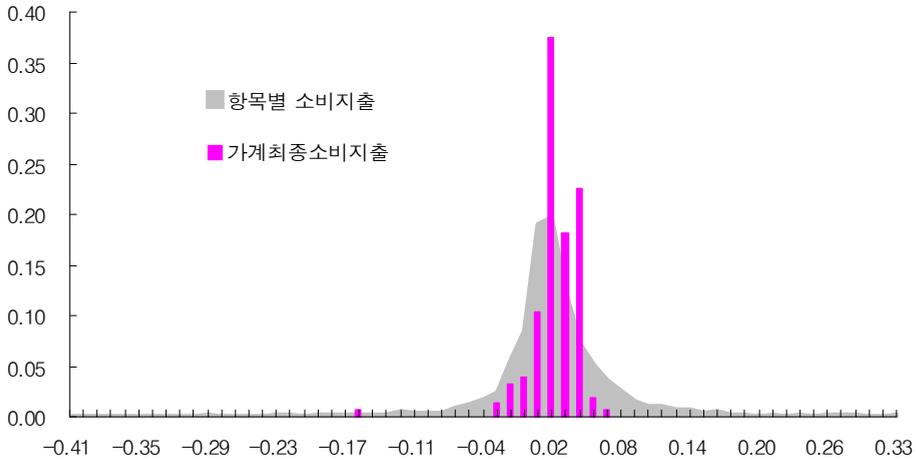
16) 식서비스 및 숙박 서비스를 포함함.

17) 개인 간호서비스, 일상용품, 사회적 보호, 보험, 금융서비스 및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서비스들로 구성됨.

18) 13개 소비항목들이 120개 분기 동안 만들어 내는 분기별 증가율이므로 모두  $120 \times 13 = 1560$ 개의 증가율 값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하나의 확률변수의 관측치로 간주하여 그 確率分布圖를 만들어 본 것이다.

19) 이는 전체 가계소비가 개별품목의 합계이기 때문에, 확률변수들의 합계의 변동성이 확률변수들의 변동성의 합계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위 Jensen's Inequality에 의한 현상이기도 하다.

〈그림 1〉 가계최종소비 전분기대비 증가율 히스토그램



이처럼 전체 가계소비지출에 못지않게, 보다 정확히는 전체 가계소비지출보다 훨씬 활발하게 변하고 있는 개별 소비지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용도와 효용이 서로 다른 재화들로서 그들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해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 및 자산의 수준,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성, 고용사정, 미래의 소득흐름에 대한 전망, 금리수준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여건들은 주로 소비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자신들의 예산제약에 영향을 줌으로써 모든 소비항목들 각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예산제약이 변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 각각의 소비항목들이 일률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지출 총액을 변화시킬 때, 모든 소비품목을 一樣的(uniformly)으로 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전체 지출액을 10% 만큼 줄이고자 할 때, 자기가 소비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일률적으로 10%씩 줄이는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sup>20)</sup> 10%를 줄

이더라도 다른 품목보다 더 많이 줄이는 품목이 있을 것이며 그 와중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한 지출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산제약의 실제 값보다 더 크거나 어떤 경우는 더 작은 예산제약을 느끼게 함으로써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예산제약하에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지출을 배분하는 단계에서는 앞서 언급된 거시경제적 여건보다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선호와 그들 각각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효용, 소비자들 개개인 사이의 차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체계는 先天的인 것으로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불변은 아니어서 많은 경우 산업 내지 기술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가진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체계도 그에 맞추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30년 정도의 기간은 소비자들의 세대가 적어도 한 차례 교체될 만큼의 장기간이므로 소비자의 선호체계 역시 세월의 흐름과 경제발전 단계, 문화 내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여 1970년대 후반의 소비자와 2008년의 소비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소비품목 가운데 어떤 것은 늘어나고 어떤 것은 줄어들고 하는 차이는 각 품목의 효용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호에 의해서뿐 아니라 재화 자체의 성격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소득이 늘어나면 전체 소비지출 총액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소비자들은 사치재 소비는 더욱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필수재 소비는 비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므로 사치재와 필수

---

20)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이런 행동양상이 간혹 발견되곤 한다. 이를테면, 어떤 이유로 인해 정부가 전체 예산을 10% 줄이겠다는 선언을 했을 경우, 각 예산항목의 우선순위 및 정책효과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 뒤, 정밀한 조정 끝에 전체 예산이 10% 줄어들도록 하는 과정을 밟기보다는 모든 항목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해 버리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는 것이다.

재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질 것이다. 즉, 소비재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 심지어 전체 소비가 변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비의 내역의 구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내역은 소비자들의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미시적, 심리적, 문화적 등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포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면,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내역은 소비자의 소비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러므로 소비지출 항목의 구성내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그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다양한 소비여건 변화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가계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들의 소비 항목별 지출비중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에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경제가 성장해오면서 달라졌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미시적 등등의 요인들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표 1>은 전체 가계최종소비지출과 아울러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13개 소비항목들의 前分期 대비 증가율의 30년 평균값들을, 가장 낮았던 것부터 가장 높았던 것의 순서로 정리해 본 것이다.

가계 최종 소비지출의 총액은 지난 30년 동안 전분기 대비 평균 1.4%씩 증가하여 왔다.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5.7%가 되는데, 매년 평균 5.7%씩 30년 동안 늘어난 결과 현재의 가계소비 규모는 30년 전인 1978년에 비해 5.3배로 늘어났다.

〈표 1〉 소비지출 항목별 전분기대비 평균 증가율(1978Q3~2008Q2)

평균치 순 위	항 목	증 가 율 평균값(%)	30년전 대비 현재규모
1	주 류 및 담 배	0.489	1.8배
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0.763	2.5배
3	의 류 및 신 발	0.883	2.9배
4	음 식 숙 박	1.070	3.6배
5	임 료 및 수 도 광 열	1.165	4.0배
6	교 육	1.260	4.5배
7	가 계 시 설 및 운 영	1.607	6.8배
8	교 통	1.666	7.3배
9	의 료 보 건	2.010	10.9배
10	오 락 문 화	2.642	22.9배
11	기 타	2.689	24.1배
12	통 신	4.460	187.9배
13	거 주 자 국 외 소 비 지 출	5.481	603.8배
	<b>가 계 최 종 소 비 지 출</b>	<b>1.397</b>	<b>5.8배</b>

항목별로 보면, 주류 및 담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이 기간 평균 0.49%로 13개 항목의 평균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았고 거주자 해외소비지출의 증가율은 기간 평균 5.48%로 13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류 및 담배 외에도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0.76%), 의류 및 신발(0.88%), 음식 및 숙박(1.07%), 임료 및 수도 광열(1.16%), 교육비 지출(1.26%)이 전체 가계소비지출보다 증가율이 낮았다. 가계 최종 소비지출보다 증가율이 높았던 항목은 가계시설 및 운영(1.61%), 의료·보건(2.01%), 오락·문화(2.64%), 기타 소비지출(2.69%), 통신(4.46%),

거주자 해외소비지출(5.48%)의 순서였다.

이와 같이, 항목별 증가율이 비교적 커다란 차이를 보임에 따라 그 규모가 30년 뒤에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주류 및 담배는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가 1978년에 비해 1.8배 늘어나는 데에 그쳤으나 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거주자 국외 소비지출의 현재 규모는 30년 전에 비해 603.8배가 늘어났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통신지출인데 30년간 187.9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주자 국외소비와 통신은 아래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30년 전의 지출규모가 극히 작았던 데에도 기인한다.<sup>21)</sup> 이들은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기호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변화시키고 수요를 빠르게 창출해 내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지출의 증가율이 매우 빨라진 경우였다.

한편, <표 2>는 항목별 소비지출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 표준편차를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정리한 결과이다. 이와 함께, 이 표는 개별 소비항목들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30년간 평균값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활발하게 증가율을 변화시켰던, 다시 말하여 증가율의 표준편차가 가장 컸던 지출항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14.259), 통신(5.361), 의료·보건(5.017), 기타소비(5.012), 가계시설 및 운영(4.995), 오락 및 문화(4.424) 등의 순서였으며 증가율의 변화가 가장 작았던

21) 30년 전 해외여행, 해외 유학 등을 포함하는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은 지금과 달리 극히 드문 소비유형이었으며, 통신지출의 경우도 통신시설 자체가 지금에 비해 희귀한 편이었다. 예를 들어 통계청(2007)에 따르면, 전화보급률의 경우 1986년에는 100명당 18.2명이 가입하고 있었으나 2006년에는 47.9명으로 늘어나 있었고 이동전화는 1986년 1만명당 1.7명이 가입했었으나 2006년에는 8,323명으로 늘어 났었다. 초고속 인터넷은 2006년 1만명당 2,908명이 가입하고 있었으나 2000년 이전에는 아예 가입자가 없었다. 이처럼 1986년과 2006년을 비교해도 그와 같은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전인 1978년으로 거슬러 간다면 지금과의 시대별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짐작된다.

항목,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변해왔던 항목은 임료 및 수도광열(1,32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2,296), 교육지출(2,457), 주류 및 담배(3,296), 교통(3,868), 음식·숙박(3,872), 의류 및 신발(4,261) 등의 순서였다.

〈표 2〉에는 30년 동안의 개별 소비항목들이 전체 가계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적어 놓고 있는데, 지난 30년을 놓고 볼 때, 소비지출 가운데 평균적으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18.54%)과 임료 및 수도광열(17.12%)이었으며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2.24%)과 주류 및 담배(2.91%)로 나타났다.

〈표 2〉 소비지출 항목별 전분기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1978Q3~2008Q2)

표준편차 순 위	항 목	증가율의 표준편차	소비비중 평균(%)
1	임 료 및 수 도 광 열	1,3213231	17.12
2	식 료 품 및 비 주 류 음 료 품	2,2963679	18.54
3	교 육	2,4566966	5.82
4	주 류 및 담 배	3,2955104	2.91
5	교 통	3,8682725	11.33
6	음 식 숙 박	3,8715163	7.81
7	의 류 및 신 발	4,261323	4.95
8	오 락 문 화	4,4239557	6.77
9	가 계 시 설 및 운 영	4,9952246	4.47
10	기 타	5,0117502	11.26
11	의 료 보 건	5,0174847	4.27
12	통 신	5,360709	3.92
13	거 주 자 국 외 소 비 지 출	14,258514	2.24
	<b>가 계 최 종 소 비 지 출</b>	<b>1,925329</b>	<b>10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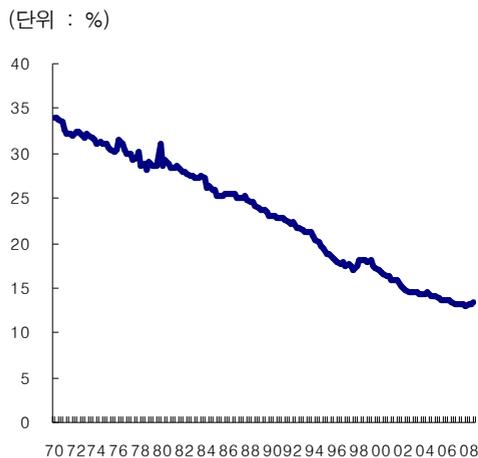


〈표 3〉은 13개 항목들의 소비비중이 5년 단위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 2-1〉에서 〈그림 2-13〉까지는 가계소비의 13개 구성항목들의 소비비중을 분기별로 그린 것이다. 이것과 〈표 3〉을 함께 보면서 항목별 소비비중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표 3〉에 따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소비비중이 1970년대 전반의 32.2%에서부터 꾸준히 하락하여 2005년 이후에는 13.4%까지 낮아졌다는 점이다. 〈표 2〉에서 본 바처럼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증가율 표준편차가 매우 작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소비의 비중을 꾸준히, 그리고 매우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줄여왔음(〈그림 2-1〉 참조)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전체 가계소비 가운데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1990년대 후

〈그림 2-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그림 2-2〉 주류 및 담배



반까지도 가장 커다란 비중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임료 및 수도광열보다 비중이 작아졌으며, 2005년 이후에는 기타 소비보다도 비중이 작아지기에 이르렀다.

주류 및 담배의 소비비중도 추세적으로는 줄어왔었지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과는 달리,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까지는 소비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다(〈그림 2-2〉 참조). 1970년대 후반의 주류 및 담배의 소비비중은 5.4%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부터는 지속적인 하락세로 반전하여 2005년 이후에는 불과 1.9%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주류 및 담배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기까지는 13가지 소비항목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임료 및 수도광열 등에 이어 일곱 번째로 소비비중이 높았던 품목이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가장 비중이 낮은 품목이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경제가 성장을 해나가면서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과 주류 및 담배의 소비비중이 일관되게 하락하였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재화가 필수재 내지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30년간 소비비중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던 품목 가운데 음식·숙박의 비중(〈그림 2-3〉)은 1970년대 이후의 하락세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이나 주류 및 담배와는 다소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다. 즉, 비중의 하락세는 1990년대 전반기까지만 지속된 뒤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음식·숙박의 비중이 1990년대를 계기로 하락세를 멈추게 된 것은 이 시기부터 일인당 국민소득이 연 6,000 달러를 넘어서면서 외식이나 숙박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그들을 가급적 줄여야 할 절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sup>22)</sup>

〈그림 2-3〉 음식·숙박



〈그림 2-4〉 임료 및 수도광열



임료 및 수도광열(〈그림 2-4〉) 역시 음식·숙박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임료 및 수도광열비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출항목이었다. 그런데 임료 및 수도광열의 소비비중은 1990년대 이후 하락세가 멈추었던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의 비중은 최근까지도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2000년대 들어서부터 兩者의 소비비중 순위가 뒤바뀌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임료 및 수도광열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소비품목이 되었다.

임료 및 수도광열비는 그 구성항목에 광열비<sup>23)</sup>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油價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실제로 〈그림 2-4〉가

22) 물론, 왜 하필 국민소득이 6,000달러를 넘기는 시점부터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발생했는지는 현재로서는 규명해 내기 어렵지만, 과거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절에는 일반국민들의 음식에 대한 인식도 '높은 효용을 제공하는,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수단' 정도였고, 돈을 벌어도, 될 수 있으면 식비는 절약하려고 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23)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국민계정 자료에는 임료 및 수도광열의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 그 가운데 임료나 수도료, 광열비 등이 차지하는 각각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게 되어있다.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임료 및 수도광열비의 비중이 갑자기 상승하였던 시기는 1980년을 전후한 약 1년여의 기간과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즉 환율급등이 원화기준 국제유가를 크게 인상시켰을 가능성이 높았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아시아 외환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둔화로 달러기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함으로써 원화환율 급등이 원화기준 국제유가를 끌어 올리는 것을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를테면 1998년의 두바이油는 전년대비 29.96%나 하락하여, 원화환율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기준 두바이油는 전년대비 4.22%밖에 상승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환율급등으로 인한 원화기준 국제유가 상승이 임료 및 수도광열비의 소비비중을 크게 늘렸던 압도적인 요인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임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의 전분기대비 증가율 표준편차는 1.32로서 전체 13가지 소비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2차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동안 가계소비가 급감하였음을 감안<sup>24)</sup>하면, 변동이 가장 작은 임료 및 수도광열비가 전체 소비에 비해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바로 이 점이 이들 두 차례의 기간 동안 임료 및 수도광열의 소비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던 중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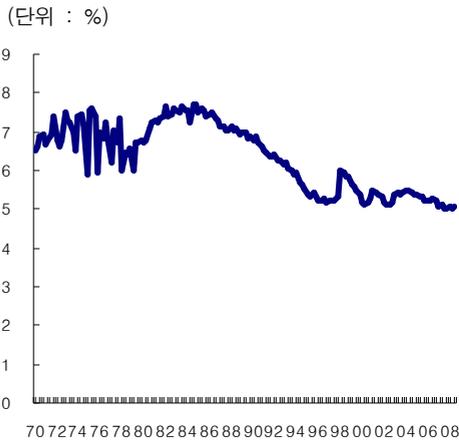
한편, 임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에는 賃借者들이 실제로 지불한 임대료뿐 아니라, 귀속 임대료, 즉 自家 소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스스로에게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理論的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임대료가 올라갈 뿐 아니라 귀속임대료까지도 올라가므로 임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도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그림 2-4>에는 2002년부터 2005년 초까지 임료 및 수도광열비 지출의 소비비중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

24) 1980년 연간 실질 가계소비는 전년의 7.2%에서  $\Delta 0.2\%$ 로 7.4%p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전년의 3.7%에서  $\Delta 11.2\%$ 로 14.9%p나 급감하였다.

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그 기간 중 빠르게 상승하였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그림 2-5>)과 의류 및 신발(<그림 2-6>)도 지난 30년 동안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도 최근 10년 동안에는 거의 일정한 소비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품목들이다. 1980년대 전반 동안 교육의 소비비중은 7.4%에 이르기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뒤로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5% 초반까지 내려 왔었고,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대체로 이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1998년 중 교육비 소비비중은 1997년의 연평균 5.2%에서 6.0%로 갑자기 상승하였는데 이것 역시 임료 및 수도광열비, 식음료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육비도 변동률이 비교적 작은 소비항목이기 때문<sup>25)</sup>에 전체 가계소비가 급감하자 교육비의 소비비중이 갑자기 증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림 2-5> 교육



<그림 2-6> 의류 · 신발



25) <표 2>에 따르면, 교육비 지출은 13가지 소비품목 중 세 번째로 증가율 표준편차가 작았다고 분석된다.

한편, 교육지출의 가계소비 비중은 1980년대 전반기의 7%대 중반에서 1996년에 이미 5.2%수준까지 하락하였고 그 뒤부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교육의 소비비중은 2007년에도 이와 비슷한 5.1%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날로 점증하고 있다는, 최근의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류 및 신발지출(<그림 2-6>)도 교육지출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하락세 가운데 최근 약 10년간,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비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던 품목이다. 1998년의 소비비중이 갑자기 증가하였던 임료 및 수도광열이나 교육과는 달리, 의류 및 신발의 소비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던 기간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4년에서 1996년까지<sup>26)</sup>였으며, 1997년부터 경제위기 와중이던 1998년 초까지는 가파르게 하락하였고, 그 이후 최근까지도 대략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류 및 신발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비교적 신축적으로 소비를 변화시켜온 품목으로서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하여서는 전체 가계소비보다도 더 빠르게 지출을 줄였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주류 및 담배, 음식 및 숙박, 임료 및 수도광열, 교육, 의류 및 신발 등의 품목들은 모두 지난 30년 동안을 놓고 보았을 때 전체 가계소비에 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던 품목들이었다.

반면, 가계시설 및 운영(<그림 2-7>), 교통(<그림 2-8>)의 경우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출비중이 크게 높아진 뒤 그 이후부터는 비중이 다시 낮아지고 있는 품목들이다. 즉 1990년대 중반까지는 소득 향상에 따라 소비지출도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우등재였으나, 그 이후로는 전체소비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늘어나면서, 즉 다음에서 보게 될 통신, 기타소비, 거주자 국외소비 등에

26)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의류 및 신발의 소비비중이 빠르게 늘어난 원인, 특히 경제적인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계 우등재의 자리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의료 및 보건(<그림 2-9>)은 1980년대 들어 소비비중이 급증하였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증가세가 멈춘 뒤 더 이상 추세적인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1년 이후 다시 증가를 재개하고 있다. 의료 및 보건의 소비비중은 1996년의 4.3%에서 1997년에는 4.5%로 높아졌고 외환위기 와중이던 1998년에도 이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카드사태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던 2003년과 2004년에도 의료 및 보건의 소비비중은 2002년의 3.9%보다 상승한 4.2% 및 4.4%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기가 침체할 때에 소비자들이 의료비 지출을 먼저 줄인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겠다. 물론 소득 계층별로 보았을 때 경기가 나빠질 경우 다른 지출에 비해 의료 및 보건 지출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줄이는 계층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경기위축에 당면하여 다른 지출보다 의료 및 보건지출을 더 줄이는 특징을 보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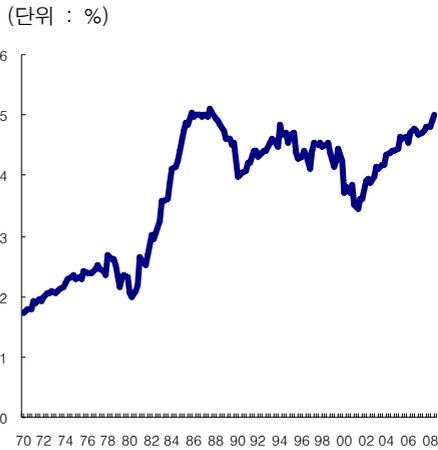
<그림 2-7> 가계시설 및 운영



<그림 2-8> 교통



〈그림 2-9〉 의료·보건



〈그림 2-10〉 오락·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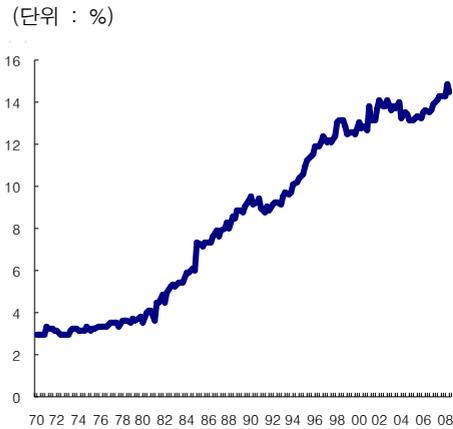


오락 및 문화(〈그림 2-10〉) 지출비중은 의료 및 보건에 비해, 추세가 멈춘다거나 하는 일 없이 상당히 뚜렷하고 일관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 오락 및 문화 지출의 특징은 가계소비가 감소하던 기간에는 그 소비비중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즉, 가계소비가 감소할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오락 및 문화지출을 더 빨리 줄여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오락 및 문화지출의 소비비중은 1998년에 6.8%로 전년의 7.2%에 비해 상당 폭 줄어들었으며, 카드 사태로 소비가 감소하던 2003년과 2004년에는 2002년의 8.4%에서 8.2% 및 7.9%로 비중이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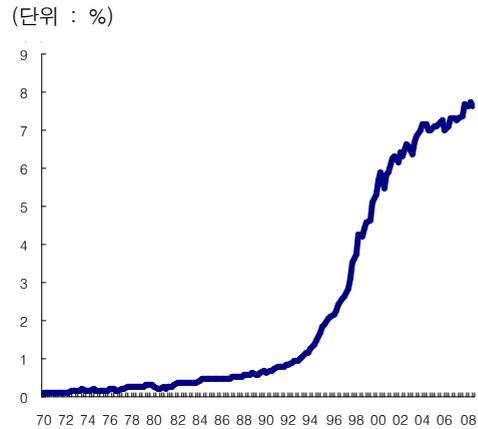
기타소비의 소비비중은 지난 30년간 매우 뚜렷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왔다(〈그림 2-11〉 참조). 그 결과 전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이후부터는 임료 및 수도광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진 품목(〈표 2〉 참조)이다. 기타 소비에는 이미용 같은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雜費뿐 아니라 보험,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금융소비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후 특히 최근의 몇 년 동안의 기타소비에는 가계대출의 확대로 일반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 소비가 높아졌던 상황을 반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sup>27)</sup>

〈그림 2-11〉 기타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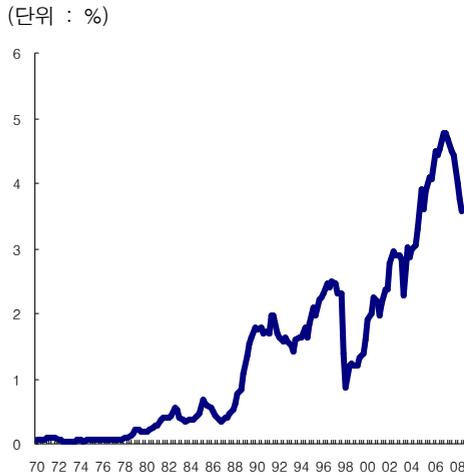
〈그림 2-12〉 통신



통신(〈그림 2-12〉)지출의 소비비중은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경기여건에 구애 받지 않고 일관되게 증가세가 지속되어온 품목이었다. 1970년대 초 통신지출의 소비비중은 불과 0.1%밖에 되지 않았고 1993년에 가서야 통신지출의 소비비중은 1%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뒤부터는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여 5년 뒤인 1998년에는 4%를 넘어섰고 그로부터 다시 5년 뒤인 2003년에는 7%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통신지출의 소비비중은 1990년대 중반 이후 IT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급증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보, 통신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그에 맞추어 크게 달라진 소비자의 선호가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7) 그러나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로지만 기타소비 가운데 금융소비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可用하지 않다.

〈그림 2-13〉 거주자 국외소비



거주자 국외소비(〈그림 2-13〉) 또한 1970년대 초반에는 전체 가계소비의 0.1% 밖에 되지 않았던, 일반 소비자들과는 거의 상관없이 없었던 소비항목이었다. 거주자 국외소비의 소비비중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난 1988년 4/4분기에 가서야 1%를 넘길 수 있었다. 그 뒤 1989년 이후부터는 이 비중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났다가 외환위기 기간 중에는 급락하기도 하였다. 1999년부터 거주자 국외소비의 소비비중은 다시 늘어났었는데 그 속도는 다른 소비항목에 비해 매우 빠른 것이었다. 카드 사태로 최장기간의 소비감소가 있었던 2003년과 2004년에는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의 소비비중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급증세에 가까울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비중이 늘어났었고, 2007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로 미루어 거주자 국외소비는 소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특히 환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소비를 늘이거나 줄일 때 목적별 소비지출의 각 항목들을 一樣的으로(uniformly) 늘이거나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을 상당히 활발하게 바꾸어왔다. <표 4>는 <표 3>을 10년 단위로 재구성하여 각각의 시대별 변화를 정리해 놓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난 30년간 소비지출의 구성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를 시기별

<표 4> 목적별 소비지출의 소비비중 비교

(단위 : %, %p)

	'70~'79 (A)	'80~'89 (B)	'90~'99 (C)	'00~ (D)	B-A	C-B	D-C	D-A
식품및비주류음료품	30.7	25.8	19.4	14.3	△4.9	△6.4	△5.1	△16.4
주 류 및 담 배	5.1	4.4	3.0	2.1	△0.7	△1.4	△0.9	△3.0
의 류 및 신 발	7.4	5.5	5.1	4.4	△1.9	△0.4	△0.7	△3.0
임 료 및 수 도 광 열	21.5	18.9	16.7	16.6	△2.6	△2.2	△0.1	△4.9
교 육	6.8	7.3	5.8	5.3	0.5	△1.5	△0.5	△1.5
음 식 숙 박	12.0	9.3	7.4	7.4	△2.7	△1.9	0.0	△4.6
가 계 시 설 및 운 영	2.7	4.0	4.9	4.3	△1.3	0.9	△0.6	1.6
의 료 보 건	2.3	4.2	4.4	4.3	1.9	0.2	△0.1	2.0
교 통	6.7	9.9	12.8	10.8	3.2	2.9	△2.0	4.1
통 신	0.2	0.5	2.3	6.9	0.3	1.8	4.6	6.7
오 락 문 화	2.0	4.1	6.8	8.1	2.1	2.7	1.3	6.1
기 타	3.3	6.9	11.0	13.6	3.6	4.1	2.6	10.3
거주자국외소비지출	0.1	0.6	1.8	3.4	0.5	1.2	1.6	3.3
(공제)비거주자국내소비	0.8	1.4	1.5	1.4	0.6	0.1	△0.1	0.6
가 계 최 중 소 비 지 출	100.0	100.0	100.0	100.0				

로 구분해 보면, 우선 1970년대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임료 및 수도광열 등이 가장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은 품목이었는데 이 두 가지의 비중을 합하면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이 넘는 52.2%에 달했었다. 결국, 전체 소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家庭 내의 식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을 소비하는 한편 주거생활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임대료·수도·광열 등의 지출에 썼던 것이다.

1970년대 소비지출에 있어서 다음으로 커다란 비중을 차지했던 항목들은 음식·숙박, 의류·신발, 교통, 교육의 순서였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비중이 높아져 왔던 거주자 국외소비, 통신, 기타소비, 오락문화 등을 위한 지출은 2000년대 이후 전체 지출의 26.4%에 달하고 있지만 1970년대에는 전체 소비지출의 6.2%밖에 되지 않았었다.

1970년대와 비교했을 때 1980년대의 소비지출구성의 특징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Delta 4.0\%p$ ), 음식·숙박( $\Delta 2.7\%p$ ), 임료·수도·광열( $\Delta 2.6\%p$ ) 등의 항목에 대한 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타소비(3.6%p), 교통(3.2%p), 오락문화(2.1%p), 의료보건(1.9%p) 등의 지출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1980년대 들어 승용차의 국내생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경제의 수준이 후발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함에 따라 오락·문화 내지 의료·보건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높아졌던 1980년대의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대에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줄어들었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6.4%p), 주류 및 담배(1.4%p), 임료 및 수도광열(2.2%p), 음식·숙박(1.9%p), 의류 및 신발(0.4%p) 등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한편, 기타소비(4.1%p), 교통(2.9%p), 오락·문화(2.7%p) 등이 늘어났는데, 1980년대와 비교하여 특이했던 점은 통신(1.8%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1.2%p) 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요 소비항목으로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Delta 5.1\text{p}$ )은 과거와 별다른 없는 빠르기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통지출( $\Delta 2.0\text{p}$ )이 새로운 감소품목이 된 반면, 통신( $4.6\text{p}$ ), 기타( $2.6\text{p}$ ),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1.6\text{p}$ ), 오락·문화( $1.3\text{p}$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천을 겪은 결과 1970년대와 비교하여 2000년대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Delta 16.4\text{p}$ ), 임료 및 수도광열( $\Delta 4.9\text{p}$ ), 음식숙박( $\Delta 4.6\text{p}$ ), 주류 및 담배( $\Delta 3.0\text{p}$ ), 의류 및 신발( $\Delta 3.0\text{p}$ ) 등의 순서로 소비비중이 줄어들었으며 기타소비지출( $10.3\text{p}$ ), 통신( $6.7\text{p}$ ), 오락문화( $6.1\text{p}$ ), 교통( $4.1\text{p}$ ),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3.3\text{p}$ )의 순서로 소비비중이 증가하였다.

## 2. 항목별 가계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의 변화추이와 시사점

가계소비가 감소하였다면 언제 감소했으며 그 때의 경제환경은 어떠했었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본 절에서는 소비를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각각의 소비항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소비항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본 절에서 살펴보려는 처분가능소득 이외에도 소비항목별 지출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양한 거시경제적 요인들이 각각의 소비항목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일일이 분석해 보는 것은 차후의 연구로 미루기로 하고 본 절에서는 다만 처분가능소득이 소비항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표 5〉에서는 가계소비지출의 항목별 소득탄력성이 기간별로 정리되어 있다. 국민계정에서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분기별로 나와 있지 않고 연도별로만 발표되고 있으므로 소득탄력성 역시 연도별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 분기별로 산

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5>는 연도별 소득탄력성을 10년 단위로 평균을 낸 것인데, 이와 같이 소득탄력성을 기간별로 살펴보려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바,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재에 대한 선호나 인식 같은 것이 일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 자신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는 변천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5> 기간별 가계최종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

	'78~'87	'88~'97	'98~'07 ( '01년 포함)	'98~'07 ( '01년 제외)
거주자국외소비지출	2,873	1,896	12,014	9,251
가계시설및운영	1,357	1,013	2,716	1,551
교통	1,116	1,203	2,059	0,659
오락문화	1,882	1,358	4,345	2,016
의류및신발	0,150	0,868	2,234	1,584
음식숙박	0,293	0,605	4,068	1,745
교육	0,880	0,600	4,014	1,216
주류및담배	0,345	0,352	0,639	0,151
임료및수도광열	0,565	0,945	1,775	1,414
의료보건	2,026	0,900	2,185	2,946
통신	2,390	3,303	6,653	3,014
식료품및비주류음료품	0,606	0,473	0,220	0,215
기타	1,722	1,509	4,356	1,421
가계최종소비지출	0,781	0,965	3,161	1,715
국내소비지출	0,779	0,943	2,810	1,384
(공제)비거주자국내소비지출	0,388	0,271	△5,424	△7,375

〈표 5〉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2001년을 제외<sup>28)</sup>하였을 때, 가장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9.251)이며 다음으로는, 통신(3.014), 의료보건(2.946), 오락 문화(2.016)의 순서로 소득탄력성이 높았다. 반면 소득탄력성이 가장 낮은 품목은, 2001년을 제외하였을 때, 주류 및 담배(0.151)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0.215), 교통지출(0.659)의 순서로 이들 세 가지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탄력성이 모두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것 가운데서는 교육(1.216), 기타소비(1.421), 가계시설 및 운영(1.551), 의류 및 신발(1.584), 음식숙박(1.745) 등의 순서로 소득탄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표 5〉에 따르면 전체 가계최종소비지출 자체의 소득탄력성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에서 1987년까지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0.781이었다가 1988년에서 1997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0.976로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1보다 작아 실질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는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어 왔었다.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에는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715(2001년 포함 시 3.161)로서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보다 실질 가계소비 증가율이 약 72%나 평균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환위기 이후 소득

28) 이 표에서 2001년을 포함했을 때와 포함하지 않았을 때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2001년의 상황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01년에는 탄력성 계산식의 분모에 들어가는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0에 가까운 0.3%에 불과하여, 1978년에서 2007년까지 평균 6.2% 증가하던 패턴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다 큰 문제는 분모의 값이 매우 작아짐에 따라 거의 모든 소비지출 항목의 탄력성이 다른 연도에 비해 특이할 정도로 큰 값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외적인 값들이 나온다는 이유로 2001년의 탄력성 값들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지만 이들을 평균치에 포함시킬 경우 기간별 탄력성의 값들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표 5〉에서는 2001년을 포함시켰을 때와 제외했을 때를 구분하여 탄력성을 산출하고 있는 것이다.

증가에 비해 소비를 대폭 증가시키면서 저축을 줄이고 부채를 늘여온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전체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크게 높아지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개별품목의 소득탄력성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을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소득탄력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던 품목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2001년을 제외하였을 경우 주류 및 담배(0.352⇒0.151), 통신(3.303⇒3.014), 기타소비(1.509⇒1.421), 교통(1.203⇒0.659) 등이 외환위기 이전의 10년에 비해 그 이후 10년의 기간 중 소득탄력성이 낮아졌다. 반면, 가계시설 및 운영(1.013⇒1.551), 의류 및 신발(0.868⇒1.584), 의료 및 보건(0.900⇒2.946), 거주자 국외 소비지출(1.896⇒9.251), 교육(0.600⇒1.216), 오락 및 문화(1.358⇒2.016), 임료 및 수도광열(0.945⇒1.414), 음식숙박(0.605⇒1.745) 등은 모두 소득탄력성이 높아지고 있다.

### Ⅲ. 지난 30년 동안의 가계소비 감소 사례분석

지금까지 과거 30년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가계소비 지출내역의 변천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각각의 지출품목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성격의 재화 또는 서비스로 받아들여져 왔는지, 그러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 개략적이거나 검토해 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2008년 2/4분기의 소비감소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지난 30년 동안 가계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었다는 점과 그 가운데 일시적 소비감소,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한 뒤 곧 이어 증가세를 회복함으로써 소비감소가 1개 분기에 그쳤던 경우는 더더욱 드물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가계소비가 일단 감소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2008년 2/4분기의 소비감소 역시 일시적인 사례에 그칠 가능성보다는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장에서는 또한 과거 30년간 소비가 감소할 때 우리나라 거시경제 여건은 어떠한지, 다시 말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 소비감소는 거시경제 여건이 어떠한 때 발생했는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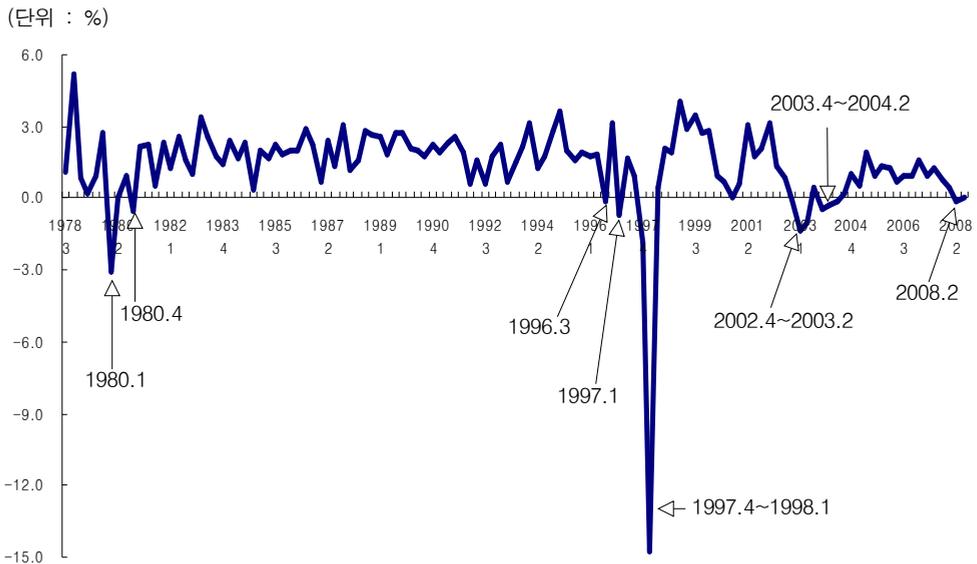
〈그림 3〉은 우리나라 불변가격 가계최종소비의 전분기대비 증가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계소비의 감소<sup>29)</sup>는 지난 30년 동안, 흔히 발생하던 일이 아니었다. 30년 동안의 120개 분기 가운데 가계소비 감소는 모두 13회로 대략 열 번에 한 번 꼴이었을 뿐이다. 소비감소는 이와 같이

---

29) 여기서 가계소비의 감소라 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가 아니라 전분기대비 감소를 말하며 다음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었을 뿐 아니라, 그 13차례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경제가 커다란 어려움을 겪던 시기와 겹쳐 일어났었다. 이는 우리경제에서 가계소비가 일단 감소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소에 그치지보다는 연속적 소비감소의 시작일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 〈그림 3〉 가계 최종 소비지출의 전분기대비 증가율 추이



주 : 기간표시는 가계소비가 전기대비 감소를 보였던 기간임.  
 자료 : 한국은행

## 1. 연속적 소비감소의 기간별 특징

2008년 2/4분기에 대한 분석에 앞서, 과거에 있었던 13번의 감소 사례에 대해, 특히 그것들이 일시적인 소비감소였는지 또는 지속적인 소비감소였는지에 대해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과거 13회에 걸친 소비감소는 대략 다섯 차례의

감소기간으로 묶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일시적인 감소에 그쳤던 경우부터 보자면 그것들은 모두 2회로서 1996년 3/4분기와 1997년 1/4분기였다. 2008년 2/4분기에도 가계소비가 감소하였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행히도 일시적인 소비감소로 그칠지는 좀더 시간이 흘러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13개의 소비감소 분기 가운데 연속적인 감소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모두 10개 분기에 이른다.

### 1) 2차 오일쇼크 직후 연속적 소비감소 기간

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던 사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1978년 말 이후 지금까지의 30년의 기간 동안 가장 처음으로 연속적 소비감소가 나타났던 사례는 1980년이였다. 이 해에는 1979년 가을의 제2차 오일쇼크로부터 촉발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전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우리경제도 6·25 사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었다. 게다가 1980년은 국내정치의 불안으로 경제심리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음은 물론, 때마침 찾아온 냉해로 벼수확이 급감<sup>30)</sup>하면서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런 여건하에서, 가계소비는 1980년 1/4분기 중 전분기대비  $\Delta 3.1\%$ 라는 제법 커다란 크기의 감소를 나타냈다(<그림 3> 참조). 그 뒤 2/4분기 들어 가계소비는 다시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섰고, 3/4분기에도 0.96%의 증가세를 유지하였

30) 2007년 불변가격 농림어업 생산은 전체 GDP의 3.2%에 불과했지만 1979년만 해도 농림어업 생산은 GDP의 13.6%에 달하고 있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GDP를 구성하는 13대 산업 가운데 제조업(30.2%)을 제외하면 GDP 비중이 13.6%를 넘는 산업은 없었다. 건설업(6.58%)과 금융 및 보험업(7.04%)의 GDP 비중을 합산하면 13.6%에 가까운 비중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1979년의 농림어업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의 감각으로는 건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을 합한 정도라는 의미이다. 1980년 농림어업 GDP는 전년대비 무려 19.4%나 감소하여 GDP 성장률 기여도가  $\Delta 2.65\%$ 에 달하였다. 1980년 GDP 성장률은  $\Delta 1.5\%$ 였으므로, 그 해에 농림어업 GDP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실질 GDP는 1.15% 이상의 플러스 성장을 보였을 것이다.

지만, 4/4분기에는  $\Delta 0.55\%$ 의 감소를 다시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증감의 부호만 본다면, 1980년 1/4분기의 소비감소는 분명히 일시적 감소였다. 1980년 중 소비가 감소하였던 1/4분기와 4/4분기는, 兩者 사이의 2/4분기 및 3/4분기의 가계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반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80년 2/4분기의 가계소비 증가율은, 부호는 플러스였으나 그 값이 매우 작아  $0.04\%$ 에 불과했으므로 1/4분기에 감소했던 소비가 2/4분기 들어 의미 있는 증가세를 회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오히려 1980년 1/4분기에 시작된 소비감소 추세가 2/4분기에도 계속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1980년 3/4분기의 증가율  $0.98\%$ 도 비교적 微弱한 수준이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우리경제가 오일 쇼크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던 1981년부터 외환위기에 빠지기 직전이던 1997년 3/4분기까지의 17년 동안 평균증가율은  $1.84\%$ 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인 것이다. 이와 같이, 1980년 1/4분기와 4/4분기의 가운데에 놓여있는 2/4분기 및 3/4분기는 소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가계소비는 1980년 4/4분기에 다시  $\Delta 0.56\%$ 의 감소를 기록했었던 것이다.

따라서 1980년 1/4분기와 4/4분기의 소비감소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기보다는 1979년 2차 오일쇼크와 1980년의 정정불안 및 냉해로 인해 나타났던 소비위축 현상이 1980년 1/4분기에서 시작하여 4/4분기까지 연속하여 진행되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분기를 하나로 묶어, 1980년 1/4분기부터 1980년 4/4분기까지를 연속적인 소비감소 기간으로 보고 있다.

## 2) 외환위기에 의한 연속적 소비감소 기간

오일 쇼크 이후, 연속적 소비감소가 다시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16년 뒤인 1997년 4/4분기와 1980년 1/4분기의 2개 분기였다.<sup>31)</sup> 이 기간은 우리경제가 외환 및 금융위기로 인해 극심한 硬着陸을 겪은 시기였다. 6.25 事變 以來, 戰時가 아닌 平時에 겪었던 경기침체 가운데서는 가장 골이 깊었던 침체였다. 설비투자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은 1997년 3/4분기부터  $\Delta 14.2\%$ 의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기 시작하여 심각한 침체를 예고하더니, 4/4분기 들어서는 무려  $\Delta 26.2\%$ 로 폭락하다시피 하였고 1998년 1/4분기에는  $\Delta 41.1\%$ 라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감소율을 보였다. 설비투자의 급감과 함께 실질 경제성장도 1997년 4/4분기에는 전년 동분기 대비  $0.05\%$  증가에 그쳤으며 1998년 1/4분기에는  $\Delta 13.8\%$ 의 두 자리 수 급락세를 나타냈다.

거시경제 여건이 前例 없는 최악의 수준으로 급속하게 악화되는 가운데 1997년 4/4분기 가계소비는 전분기 대비  $\Delta 1.86\%$  감소했다. 이 감소폭은 오일 쇼크 당시이던 1980년 1/4분기의  $\Delta 3.11\%$ 보다는 작았지만, 다음 분기인 1998년 1/4분기 들어 가계소비는 전분기대비로 무려  $\Delta 14.7\%$ 나 감소하여, 실질 GDP 성장을  $\Delta 5.3\%$ 를 크게 下廻하였다. 그러나 1998년 2/4분기부터 가계소비는 전분기 대비  $0.46\%$ 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더 이상 감소하지 않았으며, 1998년 3/4분기에는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서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증가율 기간평균치인  $1.84\%$ 를 약간 초과하는  $1.92\%$ 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외환위기로 인한 소비감소는 1997년 4/4분기와 1998년 1/4분기의 두개 분기에 그칠 수 있었다.

31) 전년 동 분기 대비를 기준으로 할 때 가계소비는 1998년 내내 두 자리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계절조정 가계소비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3) 카드사태에 따른 최장기 소비감소 기간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가 다시 연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은 외환위기 이후 불과 4년 뒤, 소위 “카드사태”의 발생과 더불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그 때까지 폭증했던 가계대출도 한계에 다다름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의 家計簿 조정이 불가피했던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까지의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카드버블(plastic bubble)의 붕괴에 따른 조정기간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의 소비침체를 유발한 요인은 카드 부실만이 아니었다. 카드 빚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가계대출도 2000년부터 급속도로 증가했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가계대출 역시 이미 한계에 다다를 만큼 크게 늘어나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조정도 불가피했었다.

부채의 조정, 다시 말하여 가계부 적자의 흑자전환을 위해 소비자들은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와 함께 내수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한 조정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소비자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신용불량자 숫자가 폭증하면서 소비감소를 더 가속화, 장기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소비감소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되었다. 소비감소에 따라 내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특수에 따른 수출호조도 고도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는데, 우리경제에서 수출호조가 고도성장을 동반하지 않았던 것은 경제개발 이후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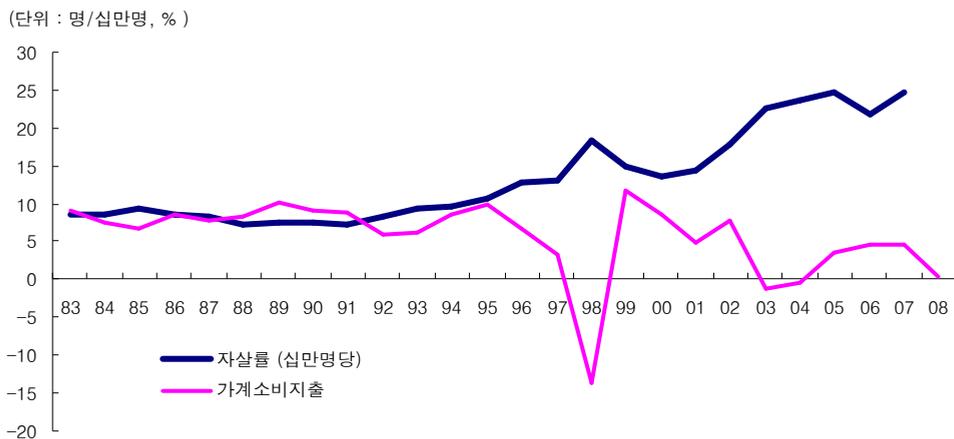
2002년 4/4분기에 시작된 가계소비의 전분기대비 감소세는 2003년 3/4분기 중 0.48%라는 소폭의 플러스로 일시 반전되었으나, 다음 분기인 2003년 4/4분기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4년 2/4분기까지 감소가 지속되었다. 이와 같이 2003년 3/4분기의 소비증가는 증가율의 값도 미미할 뿐 아니라 바로 다음 분기부터 소비감소가 再開되어 길게 이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2003년 3/4분기

에는 2002년 4/4분기에 시작된 소비감소세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3년 3/4분기 중의 일시적 플러스 증가에 구애받지 않고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의 약 1년 반을 조금 넘는 기간을 묶어 하나의 소비감소 기간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상반기까지의 소비감소기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기간이었던 것 같다. 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2002년말~2004년 상반기의 기간이 1998년에 비해 훨씬 양호했었으나 자살률(<그림 4> 참조)이나 이혼율(<그림 5> 참조)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자살이나 이혼의 발생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며 당사자들의 경제사정 악화가 자살이나 이혼 발생 원인의 전부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의 자살 및 이혼 사례들 가운데는 生活苦와 같은 경제적 이유가 중

<그림 4> 우리나라 연도별 자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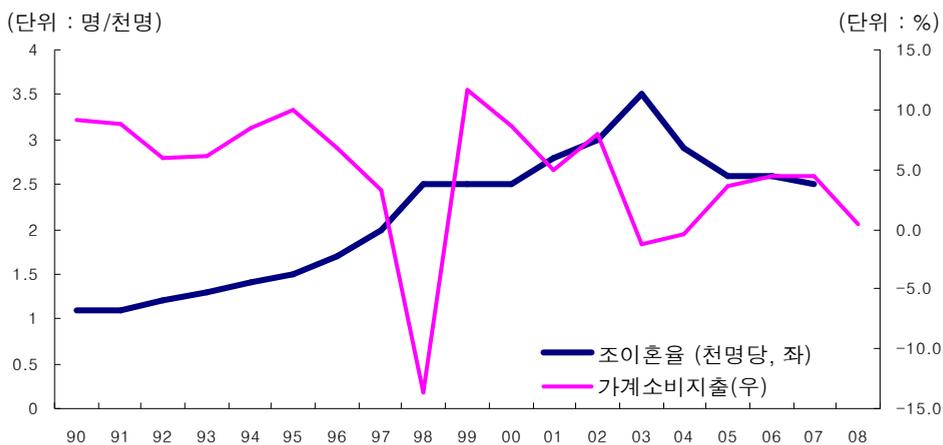


자료 : OECD, 2008

요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동기였던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통계청 2008.4, 통계청 2008.9). 또한 송태정 *et al.*(2005)에 따르면 경기침체, 소득양극화, 가계부실 등이 심화될 때 자살률과 이혼율도 함께 상승하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계소비를 연속하여 줄이는 현상은 우리경제가 통상적인 경기 순환적 침체를 넘어 매우 심각해지거나 경기침체와 동반하여 그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심해지는 시기에 나타났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경제에 연속적인 소비감소가 나타났던 경우는 ①제2차 오일쇼크 직후이던 1980년 1/4분기에서 4/4분기, ② 외환 및 금융위기 와중이던 1997년 4/4분기에서 1998년 1/4분기, ③ 소위 “카드사태”로 최장기간 소비감소가 촉발되었던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 등 세 차례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우리경제와 소비자들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기간이었다.

〈그림 5〉 우리나라 연도별 이혼율 추이



자료 : 통계청, 『이혼통계결과』 각호

세 차례의 연속적 소비감소 기간에는 모두 10개의 소비감소 분기가 포함되고 있다. 13개의 소비감소 분기 중 나머지 세 개 분기는 1996년 3/4분기와 1997년 1/4분기, 그리고 2008년 2/4분기이다. 1996년 3/4분기와 1997년 1/4분기는 소비감소가 뒤따르지 않았던 일시적 감소 분기였고 2008년 2/4분기에 대해서는 그 뒤의 가계소비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아야 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2008년 2/4분기를 일단 논외로 친다면 지난 30년을 통틀어 볼 때, 가계소비 감소가 일시적인 사건으로 그쳤던 경우는 오직 1996년 3/4분기와 1997년 1/4분기의 단 2개 분기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심각한 고통을 동반하는 연속적인 소비감소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계산할 경우 지난 30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일시적인 소비감소가 발생할 확률은  $2/120=1.667\%$ 에 불과하다. 실생활에서 어떤 사건의 발생확률이 이 정도로 낮다면 그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편, 소비감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일시적인 감소에 그칠 확률은  $2/13=15.4\%$ 이므로 이 또한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소비감소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연속적인 감소로 이어질 확률은 그만큼 높다는 의미도 된다.

## 2. 일시적 소비감소 분기 중 경제여건의 특징

지금까지 우리경제에서 가계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던 기간은 언제였으며 그 당시의 우리 경제는 어떤 여건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던 기간에는 모두 10개 분기의 소비감소 분기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과거 30년 동안 가계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사례는 단 두 개 분기, 1997년 1/4분기와 1996년 3/4분기 밖에 없었는데 당시 우리경제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1) 1997년 1/4분기의 사례

1997년 1/4분기는 경제개발 이래 처음으로 대기업 부도가 잇따라 일어나던 어수선한 시기였다. 1994년에서 1995년까지 이어지던 반도체 호황이 마감되고 1996년 들어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의 국제가격이 급락하자 이들 품목에 의존하던 우리나라 국제수지도 크게 악화되었다. 1996년에는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1997년 1/4분기 들어 경상수지 적자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73.8억 달러, GDP의 5.5%에 달했는데 이는 GDP 대비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sup>32)</sup>였다. 그리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던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보유고를 고갈시키고 있었다. 이런 배경하에, 散發的이나마 우리경제의 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고가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 경제위기란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했는지,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 기업, 금융기관, 그리고 정책당국자들조차도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 1/4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해 내는 야생동물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던 경제위기에 대해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껴 소비를 줄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경우, 1997년 1/4분기는 우리 정부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던 4/4분기 이후의 상황에 대한 사전 경고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1997년 1/4분기라는 시점은 외환위기가 본격적으로 到來하기 以前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소와 다른없는 시기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반면, 1997년 1/4분기의 소비감소는 1997 4/4분기부터 발생하게 될 연속적 소비감소와는 무관한, 그에 대한 사전경고의 의미조차도 없는, 단순히 일시적인

32) 2008년 3/4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는 85.8억 달러로서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였지만 GDP 대비로는 4.5%에 불과하여 1997년 1/4분기의 GDP 대비 5.5%에 못 미치고 있다.

감소했을 수도 있다. 먼저, 1997년 1/4분기는,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한 1997년 4/4분기와 반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인 1997년 2/4분기에 가계소비 증가율은  $\Delta 0.72\%$ 에서  $1.64\%$ 로 다시 높아져 통상적인 궤적<sup>33)</sup>으로 접근해 가고 있었다. 이처럼, 바로 다음 분기부터 소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증가율의 크기도 충분히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7년 1/4분기의 소비감소는 반년 뒤에 일어날 연속적 소비감소에 대한 하나의 誤報(false alarm)로 간주할 이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97년 1/4분기의 소비감소가 그 뒤의 소비의 움직임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뒤 벌어지게 될 경제위기에 따른 연속적인 소비감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의 사전경고였는지 아니면 오보였는지를 판별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 2) 1996년 3/4분기 및 2000년 4/4분기의 사례

1997년 1/4분기에 대한 성격규명이 쉽지 않았던 데에 비해 1996년 3/4분기의 소비감소는 일시적인 성격이 비교적 뚜렷했다. 시기적으로도 1997년 4/4분기 이후의 연속감소로부터 1년 이상 떨어져 있었을 뿐 아니라, 1996년 3/4분기의 성장률, 실업률, 실질 임금 상승률 등의 거시경제적 여건<sup>34)</sup> 가운데에도 소비위축을 초래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1996년 3/4분기 소비 감소의 크기도  $\Delta 0.09\%$ 로 미미했고, 다음 분기인 1996년 4/4분기의 가계소비는  $3.17\%$ 라는

33) 앞서 언급한 바처럼 가계소비 증가율은 제2차 오일쇼크 이후에서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의 약 17년 동안 별다른 기복 없이 평균  $1.84\%$  증가율을 나타냈었다.

34) 1996년 3/4분기의 성장률은  $6.6\%$ 로서 전분기의  $7.2\%$ 보다 소폭 하락하였고 전산업 실질임금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전분기의  $5.2\%$ 보다 조금 낮은  $4.7\%$ 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두 가지 모두 가계소비가 감소해야 할 만큼 대폭적인 감소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실업률은  $1.8\%$ 로 1995년 3/4분기의  $1.9\%$ 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전분기의 소비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고 있었다.

1996년 3/4분기보다 오히려 흥미로운 사례는 2000년 4/4분기로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4/4분기도 일시적 감소의 비교분석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당시의 가계소비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0.03%에 그쳐, 비록 숫자상 감소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증가도 아니었었다. 2000년 4/4분기의 시점은 글로벌 IT 버블의 붕괴로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특히 IT 관련업종을 중심으로 폭락<sup>35)</sup>하고 있었고, 다음 해인 2001년부터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예고되던 시기였다. 이 무렵에 나왔던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어서 세계경제의 침체의 깊이는 제2차 오일쇼크 직후에 일어났던 세계적 경기침체보다 골도 깊고 불황의 지속기간도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4/4분기의 소비정체가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던 데에는 그에 대한 정책대응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금리인하를 통한 내수부양 정책을 폈고 우리나라도 2001년 年初부터 콜금리를 낮추어 가기 시작하였다. 2001년 7월 들어 IT 버블 붕괴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IT 상품을 중심으로 수출수요가 급감하여 통관기준 수출이 통계작성 이래 최악인 전년 동월 대비  $\Delta 20\% \sim \Delta 30\%$ 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그러자 이러한 수출감소를 내수확대로 상쇄하겠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더더욱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였다. 2001년 9월에는 9.11 테러사태까지 발생하였고 그에 대해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아도 매우 낮아진 콜금리를 더욱 낮추기에 이르렀다.

연이은 금리인하로 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으며, 이에 힘입어 가계

35) 2000년 4/4분기의 분기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539.5로서 전분기 712.50에 비해서는 24.3%, 1999년 같은 분기의 921.07에 비해서는 41.4%가 하락하였다. 분기 평균 종합주가지수가 전분기 대비 24.3% 감소한 것은 1997년 4/4분기의  $\Delta 31.46\%$ , 1998년 2/4분기의  $\Delta 30.71\%$ , 2008년 4분기의  $\Delta 25.49\%$ 에 이어 지난 30년간 네 번째로 가장 낮은 기록이었다.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도 크게 진작되었다. 2000년 4/4분기 중 급격히 정체되었던 가계소비는 정작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고되던 2001년이 되자 감소가 아니라 예상 밖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2001년 실질 민간소비는 연평균 4.9% 증가하여 실질 GDP 성장률 3.8%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을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저축률은 2000년의 10.7%에서 6.4%로 대폭 낮아졌는데, 이는 2001년의 소비증가가 저축 감소를 중요한 재원으로 삼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보면, 2000년 4/4분기 중의 소비정체를 연속적 소비 감소에 대한 오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판단일지 모른다. 즉, 당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무런 상황변동이 없었다면 2001년 이후 소비를 지속적으로 줄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001년이 되어 가계소비가 감소는커녕 성장률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던 것은 사상 최저의 초저금리라는, 2000년 4/4분기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정책적 환경변화<sup>36)</sup>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즉, IT 버블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를 상쇄하려던 경기부양 정책이 충분한,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던 결과, 그렇지 않았다면 감소했을지 모르는 가계소비의 방향을 반전시켜 놓았을 가능성도 감안해 보아야 한다.

36) 당시의 저금리를 통한 소비부양정책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까닭에 자산시장의 버블을 초래하였다. 저금리를 통한 자산 버블은 작년 말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시장 및 신품시장이 혹독한 후유증을 치르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적原因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저금리는 2005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저금리가 시작된 것은 수출급감에 따른 경기침체를 상쇄하기 위해서였다. 저금리로 소비를 증가시켜 내수를 끌어올려 침체를 상쇄하는 데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뒤 2002년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완전히 회복되어 두 자리 수 증가율을 이어 나갔고, 1980년대 중반의 3저호황 이래 가장 호조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수출이 이처럼 호조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카드사태, 가계부채 확대로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소비감소는 내수용 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져 내수경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수출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내수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금리를 유지하였다.

과거 30년 동안 제일 마지막으로 나타났던 소비감소는 2008년 2/4분기의  $\Delta 0.16\%$ 로서, 과거의 사례에 비해 감소폭이 별로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구성의 내역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심각한 심리적 위축을 반영하고 있다. 2008년 2/4분기 소비지출 구성내역의 변화를 검토하고,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과연 그것이 정말로 연속적 소비감소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를 판단해 보고 그로부터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라 하겠다.

소비감소가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일시적인 감소에 그쳤던 2000년 4/4분기의 사례는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중요한 한계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다시 말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디까지나 가계소비의 증가율과 그 내역변화로부터 향후의 소비의 움직임에 대한 추론을 해보려 하고 있다. 즉, 소비증가율의 움직임이나 소비내역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말하여 소비를 결정하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소비 그 자체만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비의 결정은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어떤 시점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환경에 놓여있었으며, 소비심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이 미래의 소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소비를 완벽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0년 4/4분기의 경우처럼 향후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 같은 여건이 갖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또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감소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효력을 지닌 정책이 새롭게 나온다고는 아니면서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환경이 소비자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바뀐다고 할 경우 그에 대응하여 가계소비는 얼마든지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 IV. 2008년 2/4분기 가계소비 내역변화와 시사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2/4분기 중 가계최종소비지출은 전분기대비 감소를 시현하였다. 감소폭은 비록 크지 않았지만 항목별 구성비의 변화양상은 2008년 2/4분기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소비여건, 내지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2008년 2/4분기의 소비내역 구성변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는 한편,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였을 때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008년 2/4분기 현재의 가계소비의 움직임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질 가계소비지출은 전분기대비 0.16% 줄어들었는데, 13가지 구성 항목 가운데 8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은 줄어들었고 5가지 항목은 지출이 늘어났다. <표 6>의 가장 오른 쪽 열(column)에는 2008년 2/4분기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전분기대 비로 가장 많이 지출을 줄인 순서, 특히 전체 가계소비에 대한 기여도<sup>37)</sup>의 순서 대로 각 항목별 지출 내역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현재 소비감소에 가장 많이 기여했던 항목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Delta 0.27\%p$ )이었 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계시설 및 운용( $\Delta 0.26\%p$ ), 교통( $\Delta 0.2\%p$ ), 오락·문화 ( $\Delta 0.12\%p$ ), 의류 및 신발( $\Delta 0.10\%p$ )의 순서였다. 한편,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기타소비지출( $0.56\%p$ ),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0.14\%p$ ), 통신 ( $0.11\%p$ ), 의료보건( $0.10\%p$ )의 순서로 소비지출을 늘이기도 했다.

37) 예를 들어, 2008년 2/4분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의 가계소비지출 기여도가  $\Delta 0.27\%p$ 였다 함 은 국외소비지출의 감소가 가계 최종 소비지출을 전분기대비 0.27%p만큼 끌어 내렸다는 의미 이다.

이러한 구성비 변화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가정 밖에서 지출하는 外出型 소비 지출을 줄인 반면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在宅型 소비지출은 오히려 늘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해외소비로 불리는 거주자 국외소비지출을 비롯하여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은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 머물러 있다면 지출을 늘릴 이유가 없는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2/4분기 중 가계소비 감소에 두 번째로 커다란 기여를 했던 가계시설 및 운용은 주로 가구, 장신구, 가전제품과 같은 일상적인 가정용품에 대한 지출로서 이를 外出型 소비로 분류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결혼이나 이사 등을 계기로 거주지를 이전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이므로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들을 반드시 소비자들이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在宅型 소비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분명치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비가 줄어드는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렸던 품목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통신 등은 在宅型 소비지출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수 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은 음식·숙박에 포함되는 外食費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금년 2/4분기 중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을 소폭(전체 가계소비증가 기여도는  $\Delta 0.06\%$ ) 줄이는 대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구입을 늘렸다는 것은 外食을 줄이는 대신 가정 내에서의 조리 및 식사를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가정 내에 머물면서 오락·문화관련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2008년 2/4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거시경제 여건이 아직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外出을 줄이고 在宅型 소비를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요약된다. 소비자들의 행동반경이 해외에서 국내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축소된 것이다.

경제가 어려워져 소비지출을 줄여야 할 때, 일반적으로 밖에서 쓰는 지출을 줄이는 대신 집안에서 쓰는 지출을 늘리는 행동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양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의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外出型 소비를 줄이고 在宅型 소비를 늘리는 행태는 별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다.

## 1. 과거 소비감소 기간과의 비교 결과

〈표 6〉은 2008년 2/4분기의 소비지출항목의 소비증감 기여도를 과거 소비감소 분기 또는 연속적 소비감소 기간의 첫 분기에서의 항목별 소비증감 기여도와 비교하고 있다. 여기서 비교의 대상은 제Ⅲ장에서 논의한 세 차례의 연속적 소비감소 기간, 즉 오일쇼크 직후, 외환위기, 카드사태로 인한 소비감소의 첫 분기에 해당하는 1980년 1/4분기, 1997년 4/4분기, 그리고 2002년 4/4분기 등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소비감소 기간이던 1997년 1/4분기와, 오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1996년 4/4분기, 그리고 가계소비가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율이 0%에 가까웠던 2000년 4/4분기도 비교의 대상으로 골라 보았다. 결국, 지난 30년간 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던 기간의 경우는 그 첫 분기를, 일시적 감소는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30년간 120개 분기 가운데 7개의 분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선별한 것이다.

한편, 이 표의 괄호 속에 나와 있는 %p 숫자는 가계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에 대한 각 항목의 기여도로서, 이들 기여도를 합산하면 해당 기간의 가계 최종 소비지출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해당 항목의 소비증감 기여도를 기준으로 비교 대상 분기별로 소비 감소 기여도가 가장 큰 지출항목에서부터 시작하여 소비 증가 기여도가 가장 큰 지출항목까지를 순서대

로 나열하였다. 그 뒤, 표에 나오는 각 항목들의 소비비중을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누적시키되 누적치가 전체의 1/3을 넘을 때까지의 항목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다. 그리고 아래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것들을 순서대로 누적시키되 그들의 비중이 전체의 약 1/3을 처음으로 넘을 때까지 하나로 묶었고 이렇게 하고난 나머지 중간을 하나로 묶어 모두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각의 기간마다, 전체 소비지출 항목들을 대략 3등분하여 소비자가 가장 크게 줄인(가장 작게 늘인) 항목들, 가장 크게 늘인(가장 작게 줄인) 항목들 그리고 그 중간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재분류해 본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2/4 분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을 줄였고, 그 결과 전체 소비 감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던 소비 항목들은 거주자 국외 소비지출, 가계시설 및 운용,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으로서 이들 5가지 항목이 전체 소비의 30.3%를 차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분기에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을 늘린 소비항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통신, 의료·보건으로서 이들 3가지 항목이 전체 소비의 35.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 7>은 비교의 편의를 위해 <표 6>의 가장 오른 쪽列의 2008년 2/4분기 소비증감 기여도의 순서에 맞추어 비교대상 분기들의 소비항목들을 재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재배열함으로써 비교대상의 시점에서 각 소비항목들의 소비지출 증감 기여도가 어떠했는지를 한 눈에 알기 쉽도록 하였다.

〈표 6〉 소비감소 분기(최초 감소 분기) 중 항목별 소비증감 기여도 추이

1980:Q1	1996:3Q	1997:Q1	1997:4Q	2000:4Q	2002:4Q	2008:Q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3.19%p)	교통 (△0.59%p)	교통 (△0.86%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93%p)	가계시설 및 운영 (△0.20%p)	의류 및 신발 (△0.49%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27%p)
가계시설 및 운영 (△0.75%p)	가계시설 및 운영 (△0.22%p)	기타 (△0.42%p)	교통 (△0.70%p)	기타 (△0.19%p)	오락문화 (△0.25%p)	가계시설 및 운영 (△0.26%p)
기타 (△0.48%p)	주류 및 담배 (△0.12%p)	의류 및 신발 (△0.19%p)	의류 및 신발 (△0.32%p)	의류 및 신발 (△0.13%p)	교통 (△0.18%p)	교통 (△0.20%p)
의료보건 (△0.32%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7%p)	오락문화 (△0.12%p)	가계시설 및 운영 (△0.22%p)	교통 (△0.11%p)	음식숙박 (△0.13%p)	오락문화 (△0.12%p)
교육 (△0.30%p)	의료보건 (△0.06%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5%p)	주류 및 담배 (△0.09%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6%p)	통신 (△0.09%p)	의류 및 신발 (△0.10%p)
의류 및 신발 (△0.17%p)	의류 및 신발 (0.00%p)	교육 (0.01%p)	오락문화 (△0.07%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0.03%p)	주류 및 담배 (△0.05%p)	음식숙박 (△0.06%p)
통신 (△0.08%p)	오락문화 (0.04%p)	통신 (0.02%p)	의료 보건 (△0.04%p)	임료 및 수도광열 (0.03%p)	가계시설 및 운영 (△0.03%p)	교육 (△0.03%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1%p)	교육 (0.05%p)	음식숙박 (0.05%p)	음식 숙박 (0.01%p)	주류 및 담배 (0.04%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0.02%p)	주류 및 담배 (△0.01%p)
임료 및 수도광열 (0.01%p)	음식숙박 (0.09%p)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0.07%p)	기타 (0.02%p)	음식숙박 (0.07%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1%p)	임료 및 수도광열 (0.04%p)
오락문화 (0.10%p)	통신 (0.16%p)	주류 및 담배 (0.10%p)	교육 (0.03%p)	교육 (0.11%p)	교육 (0.05%p)	의료보건 (0.10%p)
주류 및 담배 (0.19%p)	기타 (0.17%p)	가계시설 및 운영 (0.20%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0.06%p)	의료보건 (0.13%p)	의료보건 (0.11%p)	통신 (0.11%p)
교통 (0.23%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0.23%p)	임료 및 수도광열 (0.22%p)	통신 (0.38%p)	오락문화 (0.16%p)	기타 (0.26%p)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품 (0.14%p)
음식숙박 (1.71%p)	임료 및 수도광열 (0.24%p)	의료보건 (0.27%p)	임료 및 수도광열 (0.39%p)	통신 (0.34%p)	임료 및 수도광열 (0.60%p)	기타 (0.56%p)

〈표 7〉 소비감소 분기(최초 감소 분기) 중 항목별 소비증가 기여도 추이  
(2008 : Q2 기준 재정리)

1980:Q1	1996:3Q	1997:Q1	1997:4Q	2000:4Q	2002:4Q	2008:Q2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1%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7%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5%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93%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6%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01%p)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0.27%p)
가계시설 및 운영 (△0.75%p)	가계시설 및 운영 (△0.22%p)	가계시설 및 운영 (0.20%p)	가계시설 및 운영 (△0.22%p)	가계시설 및 운영 (△0.20%p)	가계시설 및 운영 (△0.03%p)	가계시설 및 운영 (△0.26%p)
교통 (0.23%p)	교통 (△0.59%p)	교통 (△0.86%p)	교통 (△0.70%p)	교통 (△0.11%p)	교통 (△0.18%p)	교통 (△0.20%p)
오락문화 (0.10%p)	오락문화 (0.04%p)	오락문화 (△0.12%p)	오락문화 (△0.07%p)	오락문화 (0.16%p)	오락문화 (△0.25%p)	오락문화 (△0.12%p)
의류 및 신발 (△0.17%p)	의류 및 신발 (0.00%p)	의류 및 신발 (△0.19%p)	의류 및 신발 (△0.32%p)	의류 및 신발 (△0.13%p)	의류 및 신발 (△0.49%p)	의류 및 신발 (△0.10%p)
음식숙박 (1.71%p)	음식숙박 (0.09%p)	음식숙박 (0.05%p)	음식 숙박 (0.01%p)	음식숙박 (0.07%p)	음식숙박 (△0.13%p)	음식숙박 (△0.06%p)
교육 (△0.30%p)	교육 (0.05%p)	교육 (0.01%p)	교육 (0.03%p)	교육 (0.11%p)	교육 (0.05%p)	교육 (△0.03%p)
주류 및 담배 (0.19%p)	주류 및 담배 (△0.12%p)	주류 및 담배 (0.10%p)	주류 및 담배 (△0.09%p)	주류 및 담배 (0.04%p)	주류 및 담배 (△0.05%p)	주류 및 담배 (△0.01%p)
임료 및 수도광열 (0.01%p)	임료 및 수도광열 (0.24%p)	임료 및 수도광열 (0.22%p)	임료 및 수도광열 (0.39%p)	임료 및 수도광열 (0.03%p)	임료 및 수도광열 (0.60%p)	임료 및 수도광열 (0.04%p)
의료보건 (△0.32%p)	의료보건 (△0.06%p)	의료보건 (0.27%p)	의료 보건 (△0.04%p)	의료보건 (0.13%p)	의료보건 (0.11%p)	의료보건 (0.10%p)
통신 (△0.08%p)	통신 (0.16%p)	통신 (0.02%p)	통신 (0.38%p)	통신 (0.34%p)	통신 (△0.09%p)	통신 (0.11%p)
식품 및 비주류 음료품 (△3.19%p)	식품 및 비주류음료품 (0.23%p)	식품 및 비주류 음료품 (0.07%p)	식품 및 비주류음료품 (0.06%p)	식품 및 비주류음료품 (△0.03%p)	식품 및 비주류음료품 (△0.02%p)	식품 및 비주류음료품 (0.14%p)
기타 (△0.48%p)	기타 (0.17%p)	기타 (△0.42%p)	기타 (0.02%p)	기타 (△0.19%p)	기타 (0.26%p)	기타 (0.56%p)

〈표 8〉 소비감소 분기(최초 감소 분기) 중 항목별 소비증감 추이

	80Q1	96Q3(F)	97Q1(F)	97Q4	00Q4(F)	02Q4	08Q2
국 외 소 비	-	-	-	-	-	+	(-)
가 계 시 설	-	-	+	-	-	-	(-)
교 통	+	-	-	-	-	-	(-)
오 락 문 화	+	+	-	-	+	-	(-)
의 류 신 발	-	n.a.	-	-	-	-	(-)
음 식 숙 박	+	+	+	+	+	-	(-)
교 육	-	+	+	+	+	+	(-)
주 류 담 배	+	-	+	-	+	-	(-)
임료수도광열	+	+	+	+	+	+	(+)
의 료 보 건	-	-	+	-	+	+	(+)
통 신	-	+	+	+	+	-	(+)
식료품비주류	-	+	+	+	-	-	(+)
기 타	-	+	-	+	-	+	(+)
08Q2와 일치하는 항목의 개수	5	8	8	10	7	9	

〈표 8〉은 〈표 7〉로부터 각 항목별 기여도의 부호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거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던 일곱 번의 분기 중 예외 없이 나타났던 현상은 임료 및 수도·광열이 늘어났었고, 의류 및 신발, 그리고 거주자 국외소비 지출은 감소했다는 점이다.

앞서 제Ⅱ장에서도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당시 임료 및 수도·광열 지출의 소비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이 지출이 원래 변화율이 가장 작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전체 소비가 감소할 때 분모의 감소로 비중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표 8>에 의하면, 가계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지속적인 감소를 시작할 때, 즉 지속적인 감소기간의 처음 분기에는, 임료 및 수도광열 지출은 전체 소비에 대한 비중뿐 아니라 지출규모 자체도 늘어났었음을 알 수 있다. 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가 감소할 때 예외 없이 임료 및 수도광열 지출을 늘렸는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임료 및 수도광열 지출은 어찌보면 전형적인 재택형 소비항목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가계소비를 줄여야 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재택형 소비 가운데서도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임료 및 수도광열 지출의 비중을 먼저 늘리는 선택을 예외 없이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가계소비가 감소할 때 의류 및 신발의 지출이 감소하지 않았던 분기는 1996년 3/4분기가 유일하지만 <표 7>에 따르면, 그 당시 의류 및 신발의 소비 기여도는 0.00%p로서 감소는 아니었지만 증가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시적인 소비감소이건 지속적 소비감소의 첫 분기이건 사실상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거주자 국외소비 지출도 사상 최장기간의 소비감소가 시작되던 2002년 4/4분기에 감소 대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표 7>에 따르면, 증가폭이 매우 작아 소비증가 기여도가 0.01%p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質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주자 국외소비지출도 의류 및 신발과 마찬가지로 전체 가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마다 사실상 예외 없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 항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계시설 및 운영, 교통의 경우는 지난 30년간 가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마다 단 한 번씩의 예외 말고는 어김없이 감소하였던 항목들이다. 가계시설 및 운영은 1997년 1/4분기, 교통은 1980년 1/4분기에 한 번씩, 전체

가계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증가하였었다. 이 가운데 1997년 1/4분기는 곧 이어 소비가 다시 증가했던 일시적 감소였음을 감안할 때 당시 가계시설 및 운영 지출을 늘렸던 소비자의 선택을 일반적인 패턴에 어긋나는 결정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가계시설 및 운영 역시 지속적인 소비감소가 시작될 때마다 지출이 감소하였던 품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980년 1/4분기에는 전체 가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지출이 늘어났었지만, 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소비자들이 교통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1980년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통지출에는 차량구입, 연료비, 개인 수송 장비의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개인용 차량의 보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1980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불가능할 만큼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1980년 1/4분기에 교통지출이 늘어났고, 일시적 소비감소 분기였던 1997년 1/4분기에 가계시설 및 운영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예외 말고는, 2008년 2/4분기에 지출규모가 줄어들었던 항목들 가운데 거주자 해외소비지출, 교통, 가계시설 및 운영, 의류·신발 등은 소비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여왔던 항목으로 간주하여도 별다른 무리는 없어 보인다.

한편, <표 8>에서는, 2008년 2/4분기와 2002년 4/4분기를 제외하면, 전체 가계소비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음식 및 숙박의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2/4분기와 1980년 1/4분기를 제외하면 전체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교육지출은 늘어났었으며 1980년 1/4분기와 2002년 4/4분기를 제외하면 소비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에도 통신지출은 늘어났었다.

## 2. 2008년 2/4분기와 '97년 4/4분기 및 '02년 4/4분기의 비교

〈표 8〉에 정리되어 있는 개별 소비항목의 증감의 부호만을 보았을 경우, 과거 30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계소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연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던 기간 중의 지출구성 변화패턴이 2008년 2/4분기와 가장 유사했던 경우는 1997년 4/4분기였다. 가계소비를 구성하는 13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 음식·숙박, 교육, 의료·보건을 제외한 10개 항목의 2008년 2/4분기 증감의 방향이 1997년 4/4분기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이들 10가지 항목들은 1997년 4/4분기와 2008년 2/4분기에 각각 전체 소비지출의 84.7%와 84.3%를 차지함으로써 양 기간의 민간소비는 전체 감소폭이 차이가 있었을 뿐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유사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2/4분기를 최장기간의 소비 감소가 시작되던 2002년 4/4분기와 비교해 보면, 국외소비, 교육, 통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등을 제외한 9개 항목이 증감의 부호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들 9개 항목의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4/4분기의 경우 72.2%, 2008년 2/4분기의 경우 71.5%로서 두 기간의 가계소비도 상당부분이 서로 증감의 방향이 일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비항목의 증감의 부호만 아니라 소비 기여도의 크기까지를 함께 감안해 비교해 보면, 1997년 4/4분기와 2008년 2/4분기의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소비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순서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보면 2008년 2/4분기의 경우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Delta 0.27\%p$ ), 가계시설 및 운영( $\Delta 0.26\%p$ ), 교통( $\Delta 0.2\%p$ ), 오락문화( $\Delta 0.12\%p$ ), 의류 및 신발( $\Delta 0.1\%p$ ) 등 5가지였다(〈표 6〉 참조). 같은 방법으로 1997년 4/4분기의 경우를 분석했을 때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Delta 0.93\%p$ ), 교통( $\Delta 0.7\%p$ ), 의류 및 신발( $\Delta 0.32\%p$ ), 가계시설 및 운영( $\Delta 0.22\%p$ ), 주류 및 담배( $\Delta 0.09\%p$ ), 오락문화( $\Delta 0.07\%p$ ) 등 6가

지가 전체 가계소비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2008년 2/4분기와 1997년 4/4분기의 두 시점에서 공히 국외소비지출, 교통, 가계시설 및 운영, 의류 및 신발, 오락·문화지출은 소비감소에 대한 기여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소비감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즉, 1997년 4/4분기에는 “국외소비지출>가계시설 및 운영>교통>오락문화>의류신발”의 순서대로 소비감소에 기여했었는데 2008년 2/4분기에는 “국외소비지출>교통>의류신발>가계시설 및 운영>주류 및 담배>오락문화”의 순서로 소비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국외소비지출>교통>오락문화의 순서는 두 기간 모두 동일하며 가계시설 및 운영의 소비감소 기여도가 오락문화의 그것보다 더 크다는 점, 교통의 소비감소 기여도가 오락문화의 그것보다 크다는 점도 동일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순서대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표 6>에 정리된 바와 같이 2008년 2/4분기에는 통신(0.11%p),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0.14%p), 기타소비(0.56%p) 등 3가지였는데 1997년 4/4분기에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0.06%p), 통신(0.38%p), 임료 및 수도광열(0.39%p) 등 세 가지였다. 이들 각각의 3가지 항목 가운데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과 통신지출의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편, 2008년 2/4분기와 최장기간의 소비감소가 시작되던 2002년 4/4분기를 비교해 보면, 가계소비의 13개 항목 가운데 소비의 증감에 가장 큰 기여를 한 1/3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구성을 보면 양자의 유사점이 2008년 2/4분기 및 1997년 4/4분기 사이의 유사점만큼은 뚜렷하지 않다. 먼저, 소비감소에 가장 커다란 기여를 한 전체의 1/3의 경우 2002년 4/4분기에는 의류 및 신발( $\Delta 0.49\%$ p), 오락문화( $\Delta 0.25\%$ p), 교통( $\Delta 0.18\%$ p), 음식숙박( $\Delta 0.13\%$ p)으로서 2008년 2/4분기와 비교했을 때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 3가지 항목만이 일치하고

있다. 거꾸로 소비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순서대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보면 2002년 4/4분기의 경우 의료보건(0.11%p), 기타(0.26%p), 임료 및 수도광열(0.6%p)로서 기타소비지출만이 2008년 2/4분기의 경우와 일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2/4분기와 1997년 4/4분기의 항목별 가계소비의 구성의 조정양상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매우 많은 데에 비해 2008년 2/4분기와 2002년 4/4분기는 유사한 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 2/4분기 중 소비감소폭이 별로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내역의 구성변화가 1997년 4/4분기의 그것과 놀랄 만큼 유사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 외환위기로 경기가 급전직하를 목전에 두고 있던 1997년 4/4분기 당시와 매우 흡사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즉, 소비감소 폭 자체는 별로 크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소비심리가 외환위기 초입단계와 흡사할 만큼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2008년 2/4분기는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금융 측면의 여건 변화가 외환위기 당시의 여건에 비해 크기는 작았다 하더라도 질적으로는 유사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해외소비를 비롯한 외출형 소비를 줄이고 재택형 소비를 늘이는 방향으로 소비심리를 위축시켰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은 2008년 2/4분기보다 2008년 3/4분기가 더 뚜렷하였었다. 주가의 변화율은 2008년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전년동기대비 10.3% 및  $\Delta$ 18.5%, 전분기대비로는 6.3% 및  $\Delta$ 15.2%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2/4분기보다 3/4분기에 더 하락하였었다. 환율의 경우도 2008년 2/4분기의 달러당 1016.7원보다는 3/4분기의 달러당 1062.6원이 더 높았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2/4분기의 9.4%보다 3/4분기의 14.5%가 더 높았었다. 따라서 주가와 환율이 2/4분기의 소비심리 위축을 대부분 설명

할 수 있었다면 재택형 소비를 늘이고 외출형 소비를 증가시켰던 패턴도 2008년 2/4분기보다는 3/4분기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2008년 2/4분기에 나타난 소비내역의 변화패턴은 당시에 있었던 금융 측면의 상황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당히 특이했던 현상이었다고 판단된다.

### 3. 外出型 소비지출의 총가계소비 및 다른 형태의 지출에 대한 Dynamics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위 외출형 소비지출의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의미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출 내역 가운데 외출형 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재택형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외환위기 초입단계에서 나타났던 현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소비심리 위축을 반영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소비심리가 이처럼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소비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기보다는 연속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연 경험적으로도 그러한 인과관계, 즉 외출형 소비가 줄어들 때 미래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再生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외출형 소비지출과 재택형 소비지출이 전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VAR 분석을 통해 추정해 보고 있다.

먼저, 13개 소비품목을 재택형 소비 및 외출형 소비 등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데 <표 6>에서 정리되어 있는바, 2008년 2/4분기 중 소비감소에 기여하였던 순서대로 하위 1/3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품목 즉, 거주자 국외소비지출, 가계시

설 및 운영, 교통, 오락문화, 의류 및 신발 등을 하나로 묶어 편의상 “외출형 소비”이라고 부르고, 소비증가에 기여하였던 상위 1/3에 속하는 통신,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기타소비를 “재택형 소비”, 그리고 나머지 1/3인 음식숙박, 교육, 주류 및 담배, 임료 및 수도광열, 의료보건 등을 “기타형 소비”라는 이름으로 묶었다.<sup>38)</sup> 물론 재택형 소비 또는 외출형 소비라는 개념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며 개념정립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13개 소비지출 항목 가운데는 앞에서 묶은 항목들이 과연 진정으로 재택형 소비 또는 외출형 소비라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sup>39)</sup> 이와 같이 각각의 소비항목들을 재택형이나 아니면 외출형이나로 구분하는 것조차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택형 또는 외출형 소비가 현재 및 미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음을 계량적인 방법으로 엄밀하게 검증해 내기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다 심도 깊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은 엄격한 이론적 및 계량적 분석을 기다리기 전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 주관적이거나 소비지출 항목들을 대략 외출형 및 재택형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전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한 계량적 방법을 통해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여 현재 및 미래의 가계소비의 움직임에 대해 특별

38) 물론 기타형 소비에 포함되어 있는 음식·숙박지출은 전형적인 외출형 소비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전체 소비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편의상 이것을 기타형 소비에 넣어 분류했을 뿐이었다. 음식·숙박지출을 기타형 소비가 아닌 외출형 소비로 분류하여 분석을 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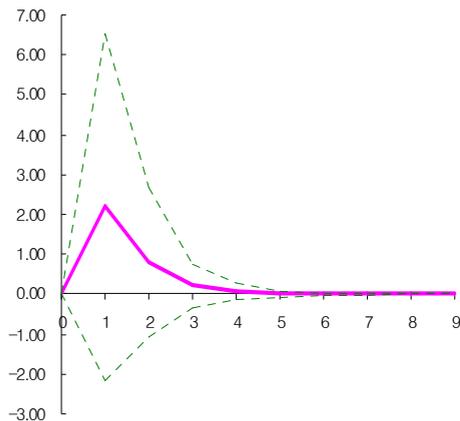
39) 소비의 각 항목들을 재택형 소비 그리고 외출형 소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이것과 다른 기준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계시설 및 운영을 과연 순수한 재택형 소비지출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순수한 외출형 소비로 보아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교육지출은 소비액을 결정하는 주체가 어디까지나 교육 서비스를 소비하는 자녀라기보다는 교육비를 내는 부모에게 있다고 볼 경우 자녀들이 소비하는 교육서비스가 과연 재택형 소비일지 아니면 외출형 소비일지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한 영향력을 가지는 구성항목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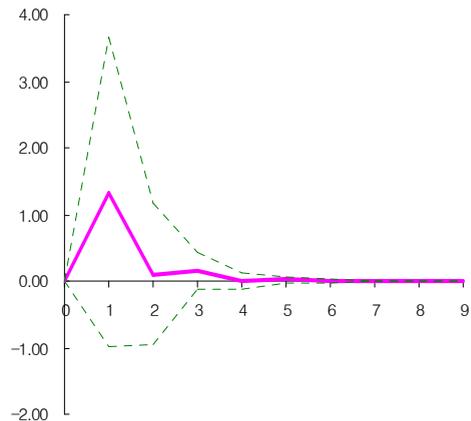
〈그림 6-1〉은 전체 가계소비지출과 그것을 구성하는 “외출형 소비”, “재택형 소비” 및 “기타형 소비”의 시계열을 가지고 4변수 VAR을 적용함으로써 세 가지 항목 그룹 각각이 1% 증가할 때 전체 가계소비가 분기별로 몇 %p 변화하는지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외출형 소비”지출이 1% 증가함과 동시에 전체 가계소비는 2.2%p 정도 증가하는데 그 충격의 영향은 2개 분기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재택형 소비”와 “기타형 소비”의 경우 전체 가계소비에 대한 영향은 서로 거의 비슷하여 1%의 충격과 동시에 가계소비는 약 1.3%p 정도 증가하나 충격의 영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그림 6-2〉, 〈그림 6-3〉)으로 나오고 있다.

〈그림 6〉 그룹별 소비지출의 가계소비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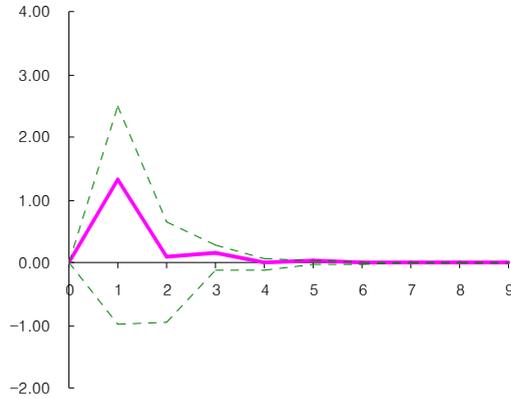
〈그림 6-1〉 외출형 소비 ⇒ 가계소비



〈그림 6-2〉 재택형 소비 ⇒ 가계소비



〈그림 6-3〉 기타형 소비 ⇒ 가계소비



주 : 외출형 소비= 국외소비지출+가계시설 및 운용+교통+오락문화+의류신발  
 재택형 소비= 식료품비주류음료품+통신+기타  
 기타형 소비= 주류 및 담배+임료 및 수도광열+교육+음식숙박+의료보건

2008년 2/4분기에는 “외출형 소비”에 대한 지출이 3.08% 감소했었고 “재택형 소비”에 대한 지출이 2.3% 정도 증가했으며 “기타형 소비”에 대한 지출은 0.12% 증가하였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충격반응함수의 결과에 대입하여 추정해보면, 그와 같은 소비내역의 구성변화는 같은 분기인 2008년 2/4분기의 가계소비를 3.6%p 감소<sup>40)</sup>시키며, 다음 분기인 2008년 3/4분기에는 전체 가계소비를 1.5%p 감소<sup>41)</sup>시키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림 7〉에서는 각 그룹별 소비지출이 1% 증가했을 때 서로 다른 그룹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것이 줄어드는 대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출형 소비”가 다른 품목에 대한 대체관계가 가장 크고 지속기간도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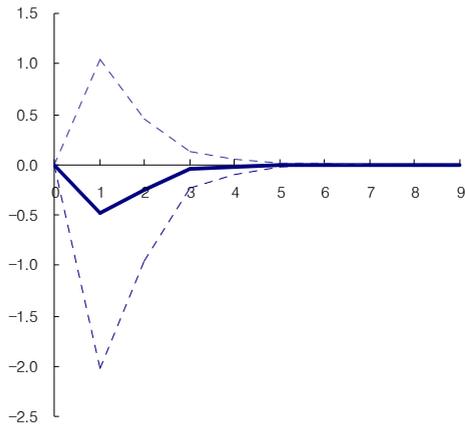
40)  $-3.08*2.2+(0.12+2.3)*1.33=\Delta 3.56$

41)  $-0.79*2.2+(0.12+2.3)*0.11=\Delta 1.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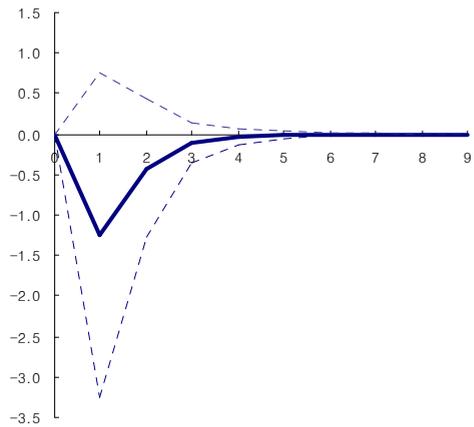
재택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나면 그와 동시에 외출형 소비지출은 0.124%p, 기타형 소비지출은 0.727%p 줄어들며, 기타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나면 그와 함께 외출형 소비지출은 0.071%, 재택형 소비지출은 0.418%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

〈그림 7〉 그룹별 소비지출의 상호 충격반응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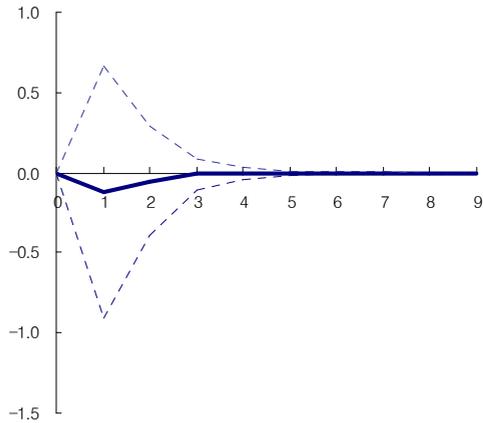
〈그림 7-1〉 외출형소비 ⇒ 기타형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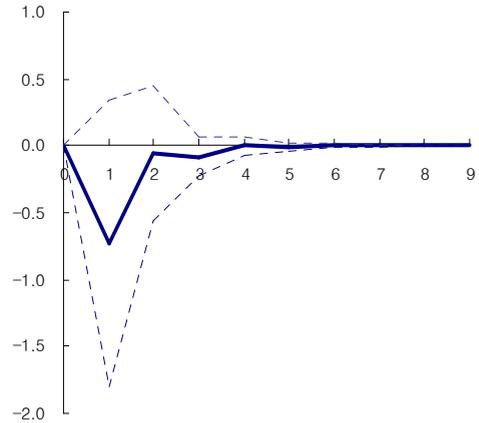
〈그림 7-2〉 외출형소비 ⇒ 재택형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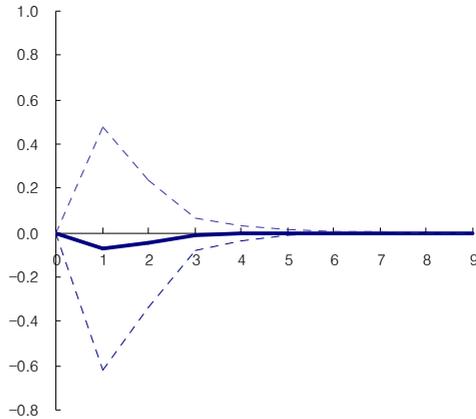
〈그림 7-3〉 재택형소비 ⇒ 외출형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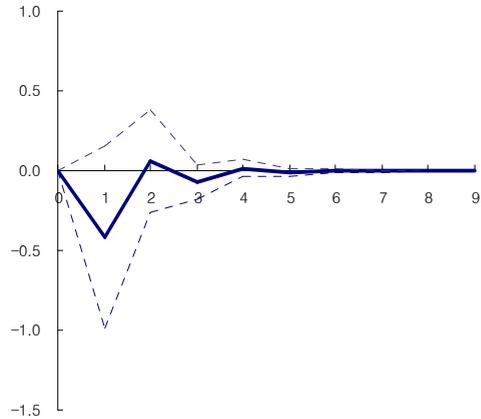
〈그림 7-4〉 재택형소비 ⇒ 기타형소비



〈그림 7-5〉 기타형소비 ⇒ 외출형소비



〈그림 7-6〉 기타형소비 ⇒ 재택형소비



었다. 여기에 비해 외출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나면 기타형 소비지출은 0.484%p, 재택형 소비지출은 1.247%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그룹의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그림 7-1〉과 〈그림 7-5〉에서 보듯이, 외출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날 때 기타형 소비지출은 0.484% 줄어들지만, 기타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나면 외출형 소비지출은 0.071% 줄어드는 데 그친다. 한편 〈그림 7-2〉와 〈그림 7-3〉에서 보듯이, 외출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날 때 재택형 소비는 1.247% 줄어드는 반면, 재택형 소비지출이 1% 늘어나면 외출형 소비지출은 0.124% 줄어들 뿐이다.

이러한 충격반응함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출형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라면 재택형 소비나 기타형 소비 등을 기꺼이 줄이려 하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 말하여 재택형 소비지출이나 기타형 소비지출을 늘리기 위해 외출형 소비지출을 줄이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택형 소비지출과 기타형 소비지출은 하나가 늘어나면 다른 하나는 줄어드는 효과

가 제법 크게 나타나, 兩者가 서로 밀접한 대체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림 7-1>과 <그림 7-2>에서 보듯 외출형 소비지출이 늘어날 때 재택형 소비지출과 기타형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는 충격이 발생한 다음 분기에도 지속되지만 재택형 소비지출이나 기타형 소비지출이 늘어날 경우 그로 인한 다른 소비지출의 감소효과는 당해 분기에 한정되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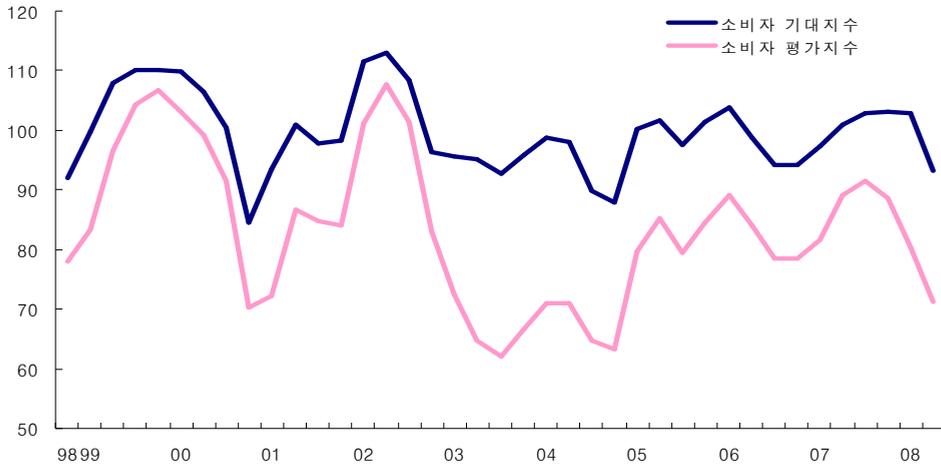
재택형 및 외출형, 그리고 기타형 소비지출 항목들이 전체 가계소비에 대한 (<그림 6-1>~<그림 6-3>), 그리고 서로에 대한(<그림 7-1>~<그림 7-6>), 영향이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좀 더 엄밀하게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분석결과의 해석과 시사점

앞에서 설명한바 2008년 2/4분기 중 소비심리 위축은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 <그림 8>에서처럼 2008년 2/4분기 중의 소비심리가 전분기 대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2008년 2/4분기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당 폭 하락한 93.13( $\Delta$ 9.8) 및 71.17( $\Delta$ 9.1)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수준을 보면 평가지수의 경우 2008년 2/4분기의 값이 2003년 2/4분기에서 2004년 4/4분기까지의 수준(평균 66.23)보다 높아 최장기간 동안의 소비감소가 지속되던 당시보다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소비여건을 약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기대지수의 경우도 2004년 3/4분기와 4/4분기(기간 평균 88.77)보다 높으며 글로벌 IT 버블이 붕괴되던 2000년 4/4분기(84.6)보다 값이 높아, 향후의 소비여건에 대해 당시보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

〈그림 8〉 분기별 소비자 기대지수 및 평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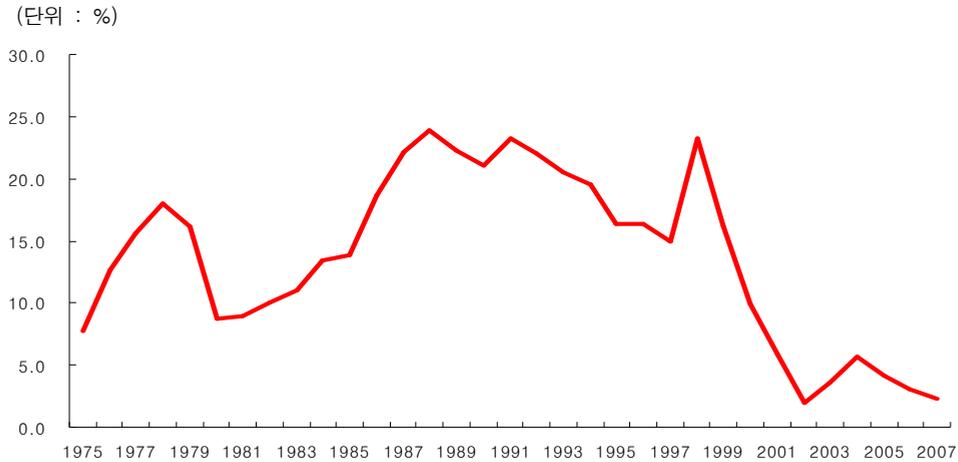


했으나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최장기간 지속되던 소비감소가 거의 마감되고 이제 조금씩이나마 소비가 증가하려고 하던 시기였다. 이 두 시기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느꼈던 소비심리는 어떤 경우가 더 심각했는지, 각각의 시기에 소비심리는 質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 <그림 8>과 같은 소비심리 지표들만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심리 지표는 어디까지나 응답자들이 자신의 느낌대로 응답한 결과로서,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과 자신의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말해 줄 수 있을 뿐이다.

2008년 2/4분기의 소비심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 가지 참고가 되는 점은 소비자들의 소비내역 구성의 변화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소비심리에 관한 정보이다. 즉,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2008년 2/4분기의 소비내역 구성 변화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외출형 소비를 크게 줄이고 재택형 소비를 크게 늘렸던 1997년 4/4분기와 質적으로 가장 흡사하다. 그렇다면 2008년 2/4분기의 소비심리는 1997년 4/4분기 중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림 9>는 우리나라 개인 순저축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1998년의 순저축률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하락추세에서부터 급격하게 반전하여 전년의 15%에서 23.2%로 급등하였다. 1998년의 경기침체가 통상적인 순환적 침체였다면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여서라도 일정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1998년의 경기침체는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었으며 저축률 역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급상승하였었다.

〈그림 9〉 개인 순저축률 추이



자료 : 통계청

Browning · Lusardi(1996)는 케인즈가 열거한 저축 동기를 아홉 가지<sup>42)</sup>로 정리하고 있다. 이들 아홉 가지 가운데 1998년의 저축률 급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저축동기는 예비적 동기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저축결정의 그림자는 곧 소비결정이라고 할 때 2008년 2/4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비내역의 변화로 은연 중 드러난 소비심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곧 예비적 저축동기가 고조되었다는 점이라고 판단된다.

42) ①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적 동기 ② 자녀 성장에 따른 지출확대와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생애동기, ③ 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의 착수를 위한 사업동기, ④ 주택이나 고가 내구재 구입을 위한 일시불 동기, ⑤ 상속동기, ⑥ 이자수입과 자산 가치의 상승을 즐기기 위한 時點間 代替動機(the intertemporal substitution motive), ⑦ 씹씹이가 커지는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향상동기, ⑧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安堵感을 얻기 위한 독립동기, ⑨ 가장 古典的인 저축동기로서, 돈을 좀처럼 쓰려고 하지 않는 구두쇠 동기 등이다.

## V. 요약 및 정책 시사점

2008년 2/4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계소비지출을 전분기대비 0.16% 감소시키는 한편, 外出型 소비를 줄이고 在宅型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소비내역의 구성을 변화시켰다. 가계소비가 전분기대비로 줄어든 것은 지난 30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매우 드물게 일어났던 일이었을 뿐 아니라 외출형 소비를 줄이고 재택형 소비를 늘리는 방식의 조정 또한 극히 드물게 나타났던 일이었다.

지난 30년, 즉 1978년부터 지금까지 120개 분기가 지나는 동안 가계소비가 감소했던 분기는 13 차례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일시적인 감소는 단 두 차례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 소비가 연속적으로 감소하던 기간이었다. 120개 분기 가운데 일시적 소비감소가 단 두 번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작년 2/4분기의 소비감소도 연속적인 소비감소로 이어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속적 소비감소는 과거 30년간 세 차례 있었다. 첫 번째가 2차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 두 번째가 외환위기 와중이던 1997년 4/4분기와 1998년 1/4분기, 세 번째는 카드사태, 신용불량자 폭증, 가계부채 확대로 최장기간 소비가 감소하던 2002년 4/4분기에서 2004년 2/4분기까지였다. 세 차례 모두 우리경제가 흥역을 치르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가계소비가 일단 감소했다면 그것은 우리경제가 매우 커다란 어려움에 빠진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작년 2/4분기 가계소비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폭의 소비감소와 함께 관찰된 소비패턴의 변화였다. 즉, 거주자 국외소비라든가, 교통비, 오락, 문화, 의류 신발, 음식숙박 등 집 밖에 나가서 쓰는 돈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 통신, 식료품 및 음료품 등 주로 집에서 쓰는 돈은 늘어났다. 간단히 말해, 외출형 소비가 줄어들고 재택형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외식 대신 집에서 밥

해먹고, 공연관람이나 패키지 여행 대신 방에 들어 앉아 인터넷을 즐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행동반경이 해외에서 국내로,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축소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가계소비가 전분기대비 감소를 기록했던 13차례의 경우를 비교 검토해 보았을 때 2008년 2/4분기의 소비내역 조정은 카드 버블의 붕괴 및 신용불량자 양산 등으로 소비가 최장 기간 동안 감소를 지속하기 시작하던 2002년 4/4분기보다는 우리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경기가 바야흐로 급전 직하를 눈앞에 두었던 1997년 4/4분기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그 때 가장 많이 줄어들었던 5대 지출항목들과 작년 2/4분기에 가장 많이 줄어든 5대 지출항목이 정확하게 서로 일치하는가 하면 그때 가장 많이 늘어났던 3대 품목 중 2가지가 작년 2/4분기에도 가장 많이 늘어났었다. 이는 결국 금년 봄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소비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향후의 소비여건에 대해 외환위기 초입단계와 유사한 일종의 위기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미 금년 봄 이후부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체감하는 소비여건이 거의 외환위기 직전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 중인 2009년 1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경제를 포함한 전세계 실물경제는 급격히 식어가고 있는 중이다. 만약 지금 같은 상황에서라면 가계소비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내역을 외환위기 초기단계와 유사하게 조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는 2008년 2/4분기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세계경기는 물론 국내의 실물경기도 그다지 급격하게 위축되지는 않았었고 주식시장을 제외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별다른 위기상황이 아직은 벌어지지 않았었다.

2008년 2/4분기는 베어스틴스社의 파산 등 美國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던 시점이긴 하나 아직은 그러한 금융위기의 파장이 국내로 파급되기 훨씬 이전이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실물경제가 가시적인 위축국면에 들어가기 전이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금융위기에 휩싸였다는 인식은 그다지 확고하지 않았으며, 미국의 정책당국자들도 공격적,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진정시킬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가 연초대비 하락했던 것 말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위기상황에 빠지지도 않았으며, 그런 경우 부수적으로 관찰되는 신용경색 현상,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실물경제 위축현상도 아직은 현재화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당시의 경제여건을 외환위기의 초입단계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적잖이 놀라운 일이었다.

2008년 2/4분기 중 소비자들이 가계소비의 13개 구성항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줄였던 품목들과 가장 많이 늘였던 품목들의 움직임은 다음분기인 2008년 3/4분기의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방향이었다. 물론, 작년 3/4분기 가계소비는 전분기대비 0.07% 증가하여 감소세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0.07%라는 증가율은 너무나 미미한 값이어서, 감소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인 증가도 아니었다. 본 연구의 분석만으로는 그 시점이 언제까지일지 알아 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당분간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소득의 증가에 비해 소비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저축 증가를 늘이는 방향으로 가계부를 조정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닌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가급적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충분히 늘려 두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2007년의 가계저축률 1.5%는 역사적으로 보아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너무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이 경기위축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대비할 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008년 말 현재,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의 둔화와 더불어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는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출비중이 매우 높아져 있는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수요의 둔화에 매우 취약해져 있다.

2001년에는 IT 산업의 버블 붕괴로 우리나라 통관기준 수출이 통계작성 이래 최악인 전년대비 12.7% 감소하였었다. 이에 따라 원화기준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전년대비 2.7% 감소하였고 GDP 비중도 2000년의 40.8%에서 38.2%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금리인하를 통해 민간소비가 4.9% 증가하여 GDP 성장률이 3.8%에 그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었다.

당시에 비해 2008년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GDP 비중은 무려 66%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세계경제 침체에 우리경제는 더욱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금년 11월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월대비 18.3%나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대중국 수출의 증가율 또한 전년동월 대비 27.8%나 급락하였고, 더욱이 작년 11월 산업생산은 197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급감했고 각종 소비지수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미루어 작년 4/4분기의 가계소비도 플러스 증가로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예상된다.

경기의 급속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내수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는 2001년과 달리 저금리를 통한 가계부채의 확대로 소비를 진작시킬 여유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내수부양과 유동성 공급의 확대를 위해 한국은행은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정책도 공격적인 팽창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세정책도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예정되어 있다. 이 중 가계소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소득세 감세라고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2/4분기에 나타난 소비자들의 위기의식은 심각한 豫備的 動機(precautionary motive)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 미래의 불확실성과 맞닥뜨렸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심리반응이다. 소비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이려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감세의 소비진작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이 강한 예비적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감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기보다는 저축증가에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기부양 효과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지금과 같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단을 통해 소비 내지 내수부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효과적이다.

1998년 초, 우리경제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던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 IMF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함께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태국이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기는커녕 성장률이 오히려 더 추락하던 와중에 한국마저 성장률이 급락하자 IMF 개입의 성과가 구제금융 대상국의 경제를 위해 과연 유익한지 아닌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구제금융을 계기로 경제주권이 일정부분 제한된 상태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은 한 국가의 고유권한인데도 거기에 대해서까지 IMF는 정책전환을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쟁점의 핵심이었던 신속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효과도 빠르고 효과의 크기도 훨씬 크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자 IMF 대표단은 더 이상 감세요구를 하지 않았었다.

그 때의 이슈는 유류세 감세였다. 그런데 지금의 이슈는 유류세보다도 경기부양효과가 작고도 느린 소득세 감세이다. 더구나 지금의 소득세 감세는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게 세부담 경감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감세

의 경기부양효과는 더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박종규 2008).

경기변동과 관련하여 민간소비의 품목을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주로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구분이었다(Baxter 1996, Bernanke 1985, Startz 1986 등).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지출 내역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이런 접근방법은 거시경제적 변수들이 포착해 내기 어려운,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출형 소비”와 “재택형 소비”의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따른 소비품목의 분류는 앞으로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그의 성질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소비관련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지출 내역구성 변화가 소득 계층별로는 어떻게 다른지, 다시 말하여, 소득수준이 다른 소비자들이 소비여건의 변화를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는 경제위기를 맞아 시급히 착수할 가치가 충분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박종규, 『200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국금융연구원 mimeo, 2008.9.
- 박종순 · 김순덕 · 지선미 · 이제숙, 「우리나라 자살률의 추세변동에 관한 연구」, 『韓國疫學會誌』 제25권 제2호, 2003.12, pp.84~91.
- 송태정 · 배민근 · 김기범, 『자살, 이혼, 범죄, 그리고 경제』, LG 경제연구원, 2005.3.
- 통계청, 「전화보급률,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한국의 사회지표』, 2007.
- \_\_\_\_\_, 『2007년 이혼통계 결과』, 2008.4.
- \_\_\_\_\_, 『2007년 사망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 2008.9.
- Baxter, Marianne, “Are Consumer Durables Important for Business Cycl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6, pp.147~155.
- Bernanke, Ben, “Adjustment Costs, Durables, and Aggregate Consump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5, Jan 1985, pp.41~58.
- Browning, M. and A. Lusardi, “Household Saving: Micro Theories and Micro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IV, Dec 1996, pp.1797~1855.
- Startz, Richard, “The Stochastic Behavior of Durable and Nondurable Consump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 May 1989, pp.356~363.
- OECD, 『Health at a Glance』, 2008.

## Abstract

### Changes in the Composition of Goods and Services and Policy Implications

Jongkyu Park

In the second quarter of 2008, household consumption in Korea decreased 0.16% in real terms from the previous quarter. The magnitude of the decline was not severe, yet it was ominous in that it is a rare event in Korea and once occurred it tends to be accompanied by consecutive declines.

Over the last 30 years, or 120 quarters, households reduced their real spending only 13 times. Out of these 13 quarters, setting aside 2008Q2, only two were temporary declines, i.e. followed by positive growth in the next quarter. A back of the envelope calculation suggests that the probability of a temporary decline of consumption is just 1.7%(=2/120). All of the other 10 quarters fell into periods of consecutive declines of consumption. Conditioning that a decline occurs, the probability that it would turn out to be temporary is 15.4%(=2/13). These calculations strongly suggest that the consumption decline in 2008Q2 will be followed by further declines in near future.

In the last 30 years, there were three periods of consecutive consumption decline. The first came in 1980 when the economy suffered from the aftermath of the second oil shock. The second was from 1997Q4 to 1998Q1 when the economy was in the middl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third was from 2002Q4 to 2004Q2 which represents the longest consumption decline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during which consumers had to struggle with shedding

off their excessive debts and rebuild credit worthiness. Each and every period of these consecutive consumption decline overlaps periods when consumers had to endure almost unbearable economic hardships.

Another feature of the consumption decline in 2008Q2 that deserves our attention was the way the composition of goods and services changed. When households determine the amounts of goods and services they want to consume, they are affected by macroeconomic, psychological, social, cultural, and personal factors. These various factors are presumably reflected not only in the aggregate amount of household consumption but also in the composition of relative amounts of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reversing the arrow of causation, we may obtain some informations about those various factors from analysing the composition of household consumption.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gaining some insights that macroeconomic data cannot provide, i.e. insights about micro-economic or psychological environments where consumers are situated.

In 2008Q2, consumers cut down on out-of-home spending and, at the same time, spent more on in-home consumption. This type of compositional revision has been an extremely rare event in the last 30 years of Korean economic history, and reveals unmistakably that consumers' sentiment had soured dramatically in 2008Q2.

The National Account publishes seasonally adjusted data of 14 subcategories of household consumption. In 2008Q2, according to the National Account, consumers reduced their out-of-home spending such as on 'purchases abroad by residents', 'transportations', 'leisure, entertainment and culture', 'clothing and footwear', and 'hotels, cafes and restaurants'. On the other hand, amid a mild decline of aggregate consumption, households increased their in-home

spending which includes 'food and non-alcoholic beverages' and 'communications'. This singular pattern implies that consumers cooked their own meals in their kitchen instead of visiting restaurants. Instead of music performances, exhibitions, or package tour, they chose internet surfing in their home. Consumers' radius of action shrank from the abroad to the inside the national borders, from away from the home to inside it.

Among the past 120 quarters, 1997Q4 stands out for sharing with 2008Q2 the transition from out-of-home spending to in-home spending. Five subcategories which decreased the most in 1997Q4 identically coincide with the five most decreased items in 2008Q2. Two out of three sub-categories which increased the most in 1997Q4 were among the most increased in 2008Q2.

The winter of 1997 was very gloomy becaus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was unfolding and consumers had to face an unprecedented economic hard-landing looming large on the horizon. Consumers' sentiment in that period was severely damaged and a precautionary savings motive was unusually predominant. As a result, personal net savings rate jumped up 8.3%p in the following crisis year of 1998.

Considering the striking similarity between consumption patterns of 2008Q2 and of 1997Q4, and recollecting what happened in 1997Q4, we can make an inference that in the spring of 2008, consumers began to have a sense of crisis similar to what they had 10 years ago. In 2008, furthermore, consumers were overwhelmed by a precautionary savings motive which may not be as strong as, yet is qualitatively similar to, what prevailed in the initial phase of the Korean economic crisis.

In order to counter the upcoming recession, the government has employed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aggressive cuts in the target interest rate and expansionary fiscal programs including a personal income tax cut. However, when consumers are obsessed with precautionary savings motive, the expansionary effects of a personal income tax cut tends to be diminished as consumers would save the windfall from the tax cut rather than to spend it away. Therefore, in the period of economic uncertainty, a spending increase is more effective than a tax cut in terms of both the magnitude and swiftness in delivery of policy effect.

The personal income tax cu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end of the last year was designed in such a way that a high income household with low propensity to consume receives disproportionately more benefit than a low income household with high propensity to consume. With such design, the stimulative effects of the tax cut are to be furthermore diminished.

## 한국금융연구원 자료판매 코너

총판 : 정부간행물 판매센터(02-394-0337)

지 역	서 점 명	전 화 번 호	위 치
서 울	본사 직영서점	(02) 734 - 6818	한국언론재단빌딩 www.gpcbooks.co.kr
	교보문고(본점)	(02) 397 - 3628	광화문 사거리 www.kyobobook.co.kr
	영풍문고(본점)	(02) 399 - 5632	종각 www.ypbooks.co.kr
	(강남점)	(02) 6282 - 1353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리브로 올 지	(02) 757 - 8991	을지로 입구 www.libro.co.kr
	서울문고 (반디 앤 루디스)	(02) 6002 - 6071	삼성역(무역센터 내)
부 산	영 광 도 서	(051) 816 - 9500	서면로타리
	동 보 서 적	(051) 803 - 8000	태화백화점 옆
광 주	삼복서점(운남점)	(062) 956 - 3888	신사 사거리
인터넷서점	yes 24	www.yes24.com	
	알라딘	www.aladdin.co.kr	

※ 위 코너 외에 교보문고 및 영풍문고는 각 지방 분점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 박종규(朴宗奎)

### ■ 약력

- 서울 대학교(경제학 학사)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통계학 석사)
- Princeton University(경제학 박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현)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 주요 논저

- 일본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 :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금융조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7)
- '93 SNA에 따른 분기별 거시경제모형 : KIF05Q(연구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6)
-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 위기 이전과 이후(공저 : 조운제, 금융학회, 2002)
- 重心(core) 인플레이션률의 새로운 測定方法과 根源 인플레이션률(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2001)

금융조사보고서 2009-05

### 소비지출 구성비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

---

2009년 3월 27일 인쇄

2009년 4월 2일 발행

발행인 김 태 준

발행처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시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5·6·7·8층

전화 : 3705-6300 FAX : 3705-6309

<http://www.kif.re.kr> ; [wmaster@kif.re.kr](mailto:wmaster@kif.re.kr)

등록 제1-1838(1995. 1. 28)

